

contents

02 Dean's Message
교직원과 동문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연세경영을 위하여

03 연세경영 3대 핵심가치

앞서 가는 연세경영

04 Key Achievements 뉴스로 보는 연세경영
06 학부 미래 경영인들의 꿈과 열정, 그 가슴 벅찬 내일을 향한 발걸음
10 MBA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소양
14 석박사 시대를 이끄는 전문성과 진리 탐구의 노력
16 최고경영자과정 초일류 경영을 통해 최고를 지향한다
18 상남경영원 최첨단 경영학 지식을 통한 경영자 교육의 완성
20 Research & Faculty 지식의 탐구와 응용으로 미래를 이끄는 최고의 전문가들

함께 하는 연세경영

26 학위 수여식 새 시대의 리더들에게 바친다
28 주요 행사 스케치 2011학년도의 다채로운 동문 초청 행사들
32 동창회장에게 듣는다 전임 동창회장님들께서 물려주신 사업, 유지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 김영진(경영 75)
34 재능 기부 I 우리 시대의 동문 리더들이 전하는 창의적 리더십
36 재능 기부 II 멘토링, 참된 소통과 신뢰로 희망 일구기
38 Sponsorship 인문학적 소양과 추억을 쌓은 소중한 기회

함께 가는 연세 경영

40 기금 현황 2011학년도 경영대학 기금 현황
42 경영관 건축 연세경영의 글로벌 비전을 위한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관 신축
44 경영관 공간 구성 신축 경영관의 새로운 이름, 모두가 함께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46 기부 스토리 I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 박지원(경영 84)
47 기부 스토리 II 열정과 사랑을 남겨준 진정한 우리들의 스승 - 고 임익순 명예 교수
48 기부 스토리 III 경영 82 졸업 25주년 재상봉 / 경영79동기회 건축기금 기부
49 기부 스토리 IV 2011학년도 경영대학 장학기금
50 기부자 인터뷰 연세경영이 만들어준 오늘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 정용화(경영 66), 고은봉(경영 66), 전찬민(경영 86)
52 장학생 감사 편지
53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54 Class Gift 졸업생의 선물 Class Gift, 연세경영의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56 Operational Highlights
58 2011학년도 연세경영 기부자 명단
60 2012 Class Gift 기부자 명단
62 연세경영 교수진

대학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중요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대학의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종합적 보고서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YSB: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은 2011년부터 한국의 단과대학으로는 최초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 직면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 성과를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과 동문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연세경영을 위하여

2011학년도에도 YSB는 고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각종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쓴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YSB가 야심 차게 운영하고 있는 CLC(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 프로그램의 폭과 깊이가 향상되었습니다. 교보문고의 협찬을 받아 독서 프로그램(R.E.A.D)을 추가했고, '창조산업과 예술경영'이라는 과목 등 경영학의 전통적인 기능분야 교육을 초월하는 인문·예술 분야의 교과목을

다수 신설하여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MBA 또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Financial Times>가 선정한 세계 100위권 Executive MBA에 연속 진입했으며, 영국의 <Economist>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Global MBA에도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YSB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과정 모두 세계 100대 MBA에 진입한 한국 최초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AMP)도 전담교수를 영입하여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 결과 지원자의 수준과 지원율이 모두 급상승하였습니다.

YSB는 학생, 동문, 학부형들을 위한 연례적인 행사를 개설하고, 새로운 행사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졸업식을 품위 있고 경건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작한 다양한 시도를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망하는 저명인사를 모셔 졸업축사를 하고, 졸업생 모두에게 단상에서 개인별 학위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졸업식에서 동문은 졸업생에게, 졸업생은 신입생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증정하는 Class Gift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졸업생의 2/3가 학위수여식에 참여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문들과 가족을 초청하는 '동문가족의 날' 행사와 동문들을 위한 특강 행사도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YSB A/S(After School) 특강을 매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경영관의 신축입니다. 학내 사정으로 많이 지연되었으나 금년에는 반드시 착공하여 경영관을 신속히 건립함으로써 YSB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YSB는 교직원과 학생, 동문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SB의 발전을 후원해주시는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YSB 교직원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3월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박상용

창조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연세경영 3대 핵심가치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윤리적인 경영 리더를 양성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는 연세경영은 3대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경영 교육의 백년대계를 구현하고 있다. 연세경영이 추구하는 빛나는 경쟁력. 그 3대 핵심가치를 소개한다.



창의성(Creativity), 세계성(Global Perspective), 윤리성(Integrity). 3대 핵심가치는 연세경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연세경영은 이와 같은 3대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인문학적 소양 양성을 통해 연세경영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경영 리더들의 인성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3대 핵심가치는 'Creative Leadership'이라는 미션 아래 탁월한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조적이고 윤리적인 리더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3대 핵심가치인 창의성(Creativity), 세계성(Global Perspective), 윤리성(Integrity)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다.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과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그리고 현장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Servant Leadership 프로그램. 이외에 다채로운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은 연세경영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참된 경영 리더로 거듭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뉴스로 보는 연세경영

2011 YSB News Top 10

2011년 열심히 한 해를 달려온 연세대 경영대학. 그 아름다운 노력의 빛나는 결실들을 한 데 모았다. 짧은 소식들로 살펴보는 연세경영의 2011년 주요 이슈들.

MBA 글로벌 랭킹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풀타임 Global MBA(GMBA)와 파트타임 Corporate MBA(CMBA)가 세계 100대 글로벌 랭킹에서 각각 76위와 57위에 올랐다. 이 성과는 국내 MBA 스쿨 중 유일하게 풀타임, 파트타임 MBA 모두 글로벌 랭킹에 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연세대 GMBA는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 100대 풀타임 MBA'에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어 세계 76위에 올랐다. 또한 CMBA의 경우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세계 100대 파트타임 MBA(EMBA)'에서 2010년 국내 최초로 71위에 오른 이후 2011년 14단계 상승해 57위로 뛰어 2년 연속 순위권 진입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Yonsei-CMC Leadership Program

연세대 경영대학은 독자적으로 클레어몬트 맥키나 칼리지(Claremont McKenna College, CMC)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도 'Yonsei-CMC Leadership Program'이라는 'residential college' 개념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리더십을 기르고 동서양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이 프로그램은 양교 학부 학생 10명을 선발해 방학 중 5주 동안 기숙사를 같이 쓰고 양교 교수진이 공동으로 강의하며 국내외 홍콩 현장 학습 등을 진행했다.

신문에서 만나는 연세대 MBA 지상강의

연세대 경영대학이 국내 MBA 스쿨로는 최초로 <조선일보> 토일섹션 위클리비즈에 '연세대 MBA 지상강의' 시리즈를 연재했다. 참여 교수진의 전공은 경영전략, 마케팅, 오퍼레이션, 재무, 매니지먼트, 정보시스템으로 다양하다. 이 지면을 통해 연세경영 교수들은 경영학의 최신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과 경영 사례를 제시해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1년 공인회계사 148명 국내 최다 배출

연세대 경영대학은 올해 공인회계사 148명을 합격시켜 공인회계사 국내 최다 배출 대학이라는 명성을 이어갔다. 이는 2011년 총 합격자 수 961명 중 약 15.4%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인회계사 배출 규모에서 올해 2위를 기록한 대학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1992년 이래 우리 대학의 공인회계사 누적 합격자 수는 2,326명으로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2천 명을 넘어섰다.

MBA 인바운드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연세 MBA는 우리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교환학생을 넘어 외국 학생들이 연세 MBA에서 수업을 듣는 인바운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폭을 더욱 넓혔다. 2011년도에는 인바운드 교환학생 25명이 연세 MBA에서 일정 기간 수업을 들었다. 학생들의 본 소속 대학은 미국 DUKE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캐나다 York University, 영국 Warwick Business School, 프랑스 Audencia Nantes,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이스라엘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멕시코 IPADE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연세 MBA는 한국 강의실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지닌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상남경영원 EC 파트너로 선정

상남경영원이 유럽위원회(EC)가 창설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유럽 최고경영자 교육 프로그램(ETP, Executive Training Program)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상남경영원은 유럽 최고경영자를 위한 한국 유일의 교육기관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총 세 차례 ETP를 실시할 예정이다. ETP는 EU 소속 국가의 기업 경영 간부들이 한국의 사업 환경을 익히고 한국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강화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최정혜 교수, AMA 우수논문상 수상

최정혜 교수(마케팅 전공)가 아메리카 마케팅 협회(AMA,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로부터 '2010년도 우수 논문상(Winner of the 2010 AMA Tech SIG Award for the Best Article)'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10년도에 마케팅 관련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 'Technology and Innovation'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혁신적인 논문 1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 교수의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 간 사회적 교류가 온라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최 교수는 연세대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수여하는 '초현학술상'도 수상하였다.

다채로운 동문 프로그램 진행

연세경영은 수많은 동문들의 직간접적인 도움과 기여로 날이 발전하고 있다. 연세경영은 동문들과 비전 공유뿐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동문과 학교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문초청포럼, 연세경영 Family Day, 경영대학 동기회 임원 부부 초청 만찬 등 어느 해보다도 다채로운 동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경쟁 환경과 21세기형 경영 패러다임'을 주제로 동문초청포럼을 진행했고, 연세경영 Family Day에 캠퍼스를 찾은 동문들은 모교에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며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경영대학 동기회 임원 부부 초청 만찬 행사는 과거의 연세경영이 아니라 미래의 연세경영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신동엽 교수 '한국의 경영구루' 3위 랭크

신동엽 교수(매니지먼트 전공)가 <매경이코노미> 선정 '2011 한국의 경영구루' 3위에 랭크되어 2010년 4위에 오른 후 2년 연속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인들에게 꾸준히 신망을 받고 있는 신 교수는 특히 CEO와 리서치센터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 교수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로 경영기법에 치중하기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심층적이고 다원적으로 접근하는 연세경영학의 전통에 충실해왔던 점을 꼽았다.

각계각층 글로벌 리더 특강

정치, 경제, 문화계 글로벌 리더들이 연세 경영에서 다양한 강연을 펼쳤다. 글로벌 제조기업인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은 도배 일을 하던 직원이 국내 굴지의 기업 부회장이 되기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의 의식, 적극성, 디테일의 힘, 현재에의 충실성, 자신감 등 5가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동차 첫 여성 임원인 채양선 상무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몽준 국회의원도 글로벌 시대의 도전과 창업정신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계 창조적 리더인 김수철 씨는 학생들에게 창조성의 원천을 되짚어주었다. 또한 연세리드 프로그램의 하나인 저자 특강으로 소설가 공지영, 외화번역가 이미도, 언론인 김여준 특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 이어졌다.

미래 경영인들의 꿈과 열정, 그가슴 벅찬 내일을 향한 발걸음

젊음의 위대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교육의 가치로 꿈꿔온 세상을 이룬다. 연세경영이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의 가치, 그 변화를 위한 시작.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2011년 연세경영의 학부 프로그램과 활동을 소개한다.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함양 컨설팅 프로젝트

소사업 경영을 주도하다
연세 마이크로파이낸스 컨설팅 프로젝트
(Yonsei Microfinance Consulting Project, YMCP)

2011년 2학기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소사업 경영'(담당 엄영호 교수) 수업에는 총 34명의 학생이 수강하며 '연세 마이크로파이낸스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영세업체 8곳에 직접 뛰어들어 경영학적 컨설팅과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 가운데 '한잔타운' 활동은 JTBC에 방영되었다. 방송은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도입 현황과 필요성 등을 다루면서 성공 사례로 '한잔타운'을 소개했다. 영성한 인테리어와 메뉴의 비효율적인 원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잔타운'은 학생들의 컨설팅과 봉사로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다. 학생들은 벽화를 꾸미고 원가 구조를 고려해 메뉴를 개선하는 등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근현(경영 06) 군은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 한잔타운을 컨설팅하려 했을 때는 절망감과 막막함이 들었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해서 개선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현직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연세 커뮤니티 컨설팅 프로젝트
(Yonsei Community Consulting Project, YCCP)

2011년 1학기 35명의 학생들이 8명의 현직 컨설턴트들의 지도 아래 신촌 상권, 사회적 기업, 일반 기업 등의 7개 프로젝트를 컨설팅했다. 이번에는 신촌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예년과 달리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컨설팅 대상업체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랜드하얏트서울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 중 학생들의 컨설팅 보고서 제안 내용이 이미 실행에 옮겨져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가 구축·활성화되기도 했다. 지난 5월 30일 첫선을 보인 그랜드하얏트서울의 공식 페이지는 프로젝트 발표일인 6월 11일 약 1천명의 온라인 고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랜드하얏트서울 홍보부 박경서 팀장은 "소비자 입장인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09년 이후 4회를 진행한 YCCP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기업명	주제	어드바이저
터치포곳	사회적 기업 터치포곳의 인력 활용 방안 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진	탁양현 상무 (Goldman Sachs)
그랜드하얏트서울	Grand Hyatt Seoul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심태호 부사장, 조형진 팀장(A.T. Kearney)
Shiva Pub	Shiva Pub의 고객 확보를 위한 컨설팅	최영환 부장(현대자동차)
비어드파파	비어드파파의 브랜드 차별화 전략 수립	안태희 팀장 (A.T. Kearney)
HMC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의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김희선 컨설턴트 (A.T. Kearney)
개관	호프집 개관의 마케팅 및 리브랜딩 전략	손재일 컨설턴트 (McKinsey)
Smooth	병맥주 전문점 Smooth를 위한 전략	정재훈 매니저(McKinsey)



리더십을 배우고 동서양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Yonsei-CMC Leadership Program

2011년 여름 처음 실시한 Yonsei-CMC Leadership Program은 연세대 경영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명문 Liberal Arts College인 클레어몬트 맥키나 칼리지(Claremont McKenna College, CMC) 학생들이 비즈니스와 국제 관계에서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동서양의 경제 개념과 문화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세대 경영대학 학생 10명과 CMC 학생 10명이 각각 5주간 룸메이트가 되어 생활했다. 이들은 담당 교수인 CMC 맨프레드 카일(Manfred Keil) 교수와 연세대 경영대학 한재훈,곽주영 교수로부터 한국 경제, 금융 위기, 중국과 한국의 문화·사회·역사, 한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삼성홈플러스 등 국내 기업과 홍콩 미래에셋, 노무라증권 등 해외 기업에서 현장 학습을 받았다. 마지막 주에는 CMC의 KLI(Kravis Leadership Institute)가 제공한 KLI Leadership Learning Exercise 세션을 진행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원 KLI의 글로벌 리더십 개발 인증서를 받았다. 이승환(경영 08) 학생은 "다른 글로벌 프로그램과 달리 외국 학생과



룸메이트로 한 방에서 생활해 서로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블롬버그(Christopher Brock Blomberg)는 "연세대 학생과의 룸메이트 생활이 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수업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세계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CMC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꿈 김소연(경영 08)

지난 7월의 첫째 토요일, Claremont McKenna College 학생 10명과 연세대 학생 10명이 마주했다. 미국 서부의 명문 Liberal Arts College 중 하나인 Claremont McKenna College와 연세대 경영대학 간의 여름 특별 교류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연세대학교 학생과 CMC 학생은 각각 룸메이트가 되어 함께 생활하며 5주 동안 강의 및 국내외 현장 학습에 참여했다. 커리큘럼은 크게 이론 및 특별 강연, 조별 프로젝트, 현장 학습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추구한 목표는 외부적 시선을 통한 내부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말미에 참가한 모든 학생은 해외 진출에 있어 한국의 매력 혹은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했다. 5주 동안 한국의 경제와 아시아적 특수성에 대해 배운 것들을 총망라하며, 이에 대한 리더십은 또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외국 친구와 한 방을 쓰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차이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끊임없이 그들의 시선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친구를 사귀면서 얻은 문화적 교류는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Seeing wider through the dual lens Hannah Hooney

The five weeks I spent in Seoul during the summer of 2011 sparked new interests and ambitions for me, both academically and personally. The Yonsei University-Claremont McKenna College Summer Leadership Program struck an excellent balance between introducing us to relevant concepts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macroeconomics and exposing us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rough the curricular and experiential learning components, we had access to the expertise of many other academics and professionals at the forefront of their respective fields. The extensive alumni networks of both Yonsei and CMC enabled us to visit facilities and speak to executives at a diverse group of multinational companies such as Nomura Securities and 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DSME). The Yonsei-CMC program fostered my desire to continue to study Asia and explore opportunities for a future career that allows me to maintain connections to the region. Through our final writing assignment, I delved into the challenges facing Korea with regard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 appreciate the time and effort that went into structuring such a well-rounded program and am eager to see the successes of future participants, gaining exposure to global business leadership and Korean culture through the dual lens of YSB and CMC.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소양

언제나 한발 앞서 세상을 움직이고 이끈다.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 속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리더의 소양을 키워간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키우는 MBA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의 힘, 인턴십에 이어 높은 취업률 기록한 GMBA

연세 GMBA(Global MBA)는 2011년 여름 전 세계 5대륙 17개국 출신 졸업 예정자 32명 전원에게 글로벌 국내외 기업 인턴십 활동을 제공했다. 인턴십을 수행한 GMBA 학생들은 내국인 6명, 외국인 26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월등히 높다. 외국인들을 성공적으로 인턴십 활동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세 GMBA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 체험을 중시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인턴 대상 기업은 삼성SDS,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한화증권, LG생활건강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 싱가포르개발은행, 중국농업은행, 월마트 멕시코지사 등 해외 우수 기업 및 기관이 포함되었으며 학생들의 인턴 기간은 평균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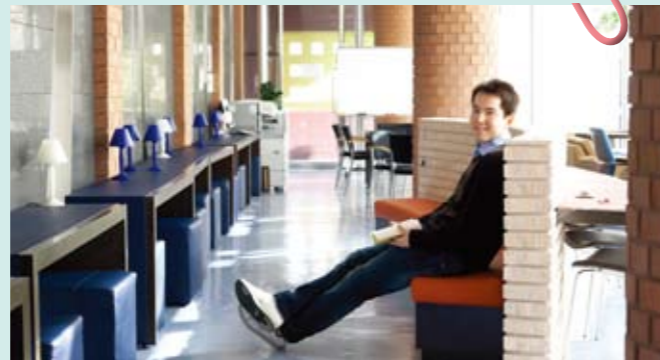
월 정도였다. 연세경영은 GMBA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 이후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GMBA 졸업생 중 국내에 취업해 자신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43명 가운데 약 94%가 취업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머지 7명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 진학 혹은 사업을 시작했다. 졸업생들의 채용 기업은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의 글로벌 제조기업, 싱가포르개발은행, 현대캐피탈,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등 금융업계, 홈플러스, 월마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나 출신의 GMBA 졸업생은 MBA를 시작하기 전 몸담았던 Ministry of Food & Agriculture Ghana로 복귀해 한국에서 배운 경영 지식과 경험을 자국의 농업 발전에 활용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Yonsei Global MBA lighted up my life

Yerbol Nisanbayev(2012년 졸업, 삼성전자 취업)

When I was looking for a comprehensive MBA program in Asia, where my interests lie in, Yonsei drew my attention with its excellent program and great respond to students' needs. Yonsei has one of the largest international student bodies among the Korean universities, and it has helped to build a very interesting school culture that shares both Korean and foreign traits. Overall, I believe this program provides huge social and professional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The official aim of the program is to prepare experts on doing business in North-East Asian markets: Korea, China and Japan. As Asia becomes an increasingly important region of the world's economic and political life, the demand will grow for people that are able to understand the peculiarities of doing business in Asia and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the western world. The most memorable part was the trips to the industrial factories and plants organized by the school and the companies. The trips to



DSME, POSCO, Hyundai plants were a great chance to see the Korean Miracle in the making.

As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working in new business and strategic development, I would like to try to become a professional in that field. And I believe the knowledge and experiences I have acquired through Yonsei Global MBA will help me a lot to perform better jobs.

전 세계 14개국 인재들이 모였다, 2011 GMBA 학생 선발

연세 GMBA는 2011년 신입생으로 전 세계 14개국에서 온 45명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됐다. 이 중 약 50%인 22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루마니아, 러시아, 호주, 남아공, 이스라엘, 인도, 대만,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였다. 글로벌 수업 환경과 다양성 확보라는 연세 GMBA의 철학은 신입생 구성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특히 신입생들의 평균 GMAT 점수가 무려 690점으로, 작년 평균 643점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국 <Economist>에서 발표한 2010년

유럽 Top 20 MBA 프로그램의 GMAT 평균 점수 648점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점수이다. 직장 경력 또한 평균 4.6년에 달해 이들의 사회 경험이 수업에 많은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학기 시작 전 3일간 합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도 높은 팀 빌딩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학기 초반부터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다. 선배들과의 네트워킹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GMBA 모습을 보이고 있다.

Success to give back to those who gave me opportunities

Seth Hammontree (Global MBA 2011 재학생)

I had been adopted to USA as a Korean. Being an adopted Korean had a tremendous impact on my decision to come to Korea. With my parents' lifetime support and encouragement I have not only accepted my adoption but am proud to be an adoptee from Korea.

As I searched my options of taking a part time MBA in the States or enrolling in a full time program at Yonsei University, I found Yonsei's GMBA program to be the perfect opportunity. At Yonsei University I would receive

a world class education, the opportunity to learn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and live in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the world. It was an opportunity that comes around only once in a lifetime and when I realized that it was quite an easy decision to make.

The education I have received has exceeded my expectations. Including



enthusiastic professors and exciting classmates, I've met so many incredible people and will have memories that will last a lifetime. My goal is to find a job working in Korea and to give back to those who have supported me. For me, succeeding in a job is extremely important. Attending and graduating from Yonsei GMBA program is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this success. I also measure success by being able to give back to those who have made all of this possible. I of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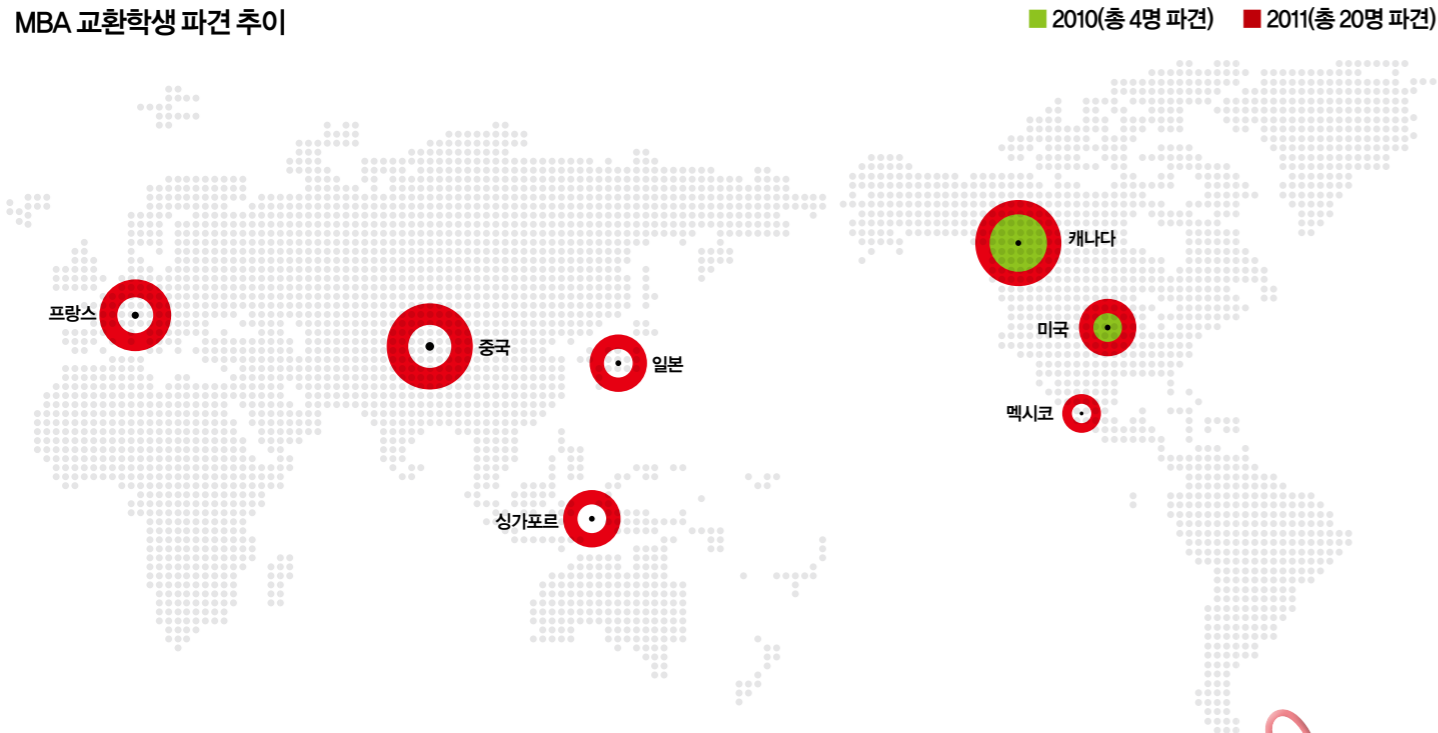
ask myself, "What can a Korean American adoptee with a GMBA from Yonsei University do in Korea?" For starters, I can give my employer my knowledge and dedication, I can support Yonsei's GMBA program as a proud alumni, and I can give back to Korean adoptees and orphans. And hopefully, that is just the beginning.

학생 교환 제도 정착으로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날개를 달다

연세경영은 2010년 MBA 개편을 계기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학생 유치와 함께 해외 수학 경험이 없는 Global MBA 학생을 포함한 MBA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파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 협력 학교로 파견된 MBA 학생 수가 대폭 확대,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MBA 교환학생 파견 추이



중남미의 나라, 멕시코의 경제와 문화를 배우다

신성우(Global MBA 2010,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 IPADE 교환학생 수학)

2011년 새해 벽두, 교환학생 수업을 위해 멕시코로 출발했다. 직항이 없는 관계로 미국 서부를 거쳐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멕시코시티. 남미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IPADE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다. 첫날 8시에 시작된 교환학생 환영간담회.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온 17명의 교환학생들과의 첫 대면. 나는 아시아에서 온 첫 번째 교환학생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Pioneer'로 소개되었다.

2011년 (파이낸셜타임스) 선정 Global MBA 랭킹 64위의 명성답게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었다. 특히 매일 아침 수업 전에 각 팀 멤버들이 모두 모여 조식을 겸해 그 날의 'article'을 읽고 토론하며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매우 인상 깊었다. 멕시코 시티 외의 다른 캠퍼스에 있는 IPADE MBA 학생들과 1주일간 수업을 같이하는 'International week'에는 멕시코의 경제, 문화 연구 및 기업체 방문의 시간을 가졌다. 멕시코 산업 전반의 'Real Case'를 다루는 수업 또한 아주 유용했다. 학교에서 스페인어 강좌를 개설해 학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멕시코의 치안이 불안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안전이 보장되고 캠퍼스 내에서 모든 것이 거의 무료로 제공되므로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남미, 인도 등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교환학생 제도는 즐거운 경험이자 배움의 과정

김동수(Global MBA 2010, 중국 북경 소재 칭화대 교환학생 수학)

'낙후된 인프라,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 분위기, 체제 안에서 억압되고 경직된 국민들'. 처음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나의 이러한 선입견은 보기 좋게 빛나갔다. 만 5개월 동안 살아본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역동적인 나라였다.

학교 안의 분위기도 그랬다. 북미, 유럽, 아시아를 망라한 세계 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MBA 학생들만 학기에 30여 명일 정도다. 중국이라는 큰 주제를 두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도 좋은 경험이었다. 같은 현상을 두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조금은 다른 각도에 있는 공산주의적 시각을 배울 수 있었던 점도 소독이었다. 강의실 밖에서는 더욱 값진 경험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쇼핑 거리와 인력거를 끄는 고단한 인민의 삶이 공존하는 거리 분위기,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는 만리장성과 이화원까지. 베이징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자체가 배움이었다.

단순히 중국어 좀 배워보자고 시작한 베이징 교환학생 생활. 이제는 '살면서 그런 좋은 시간이 내게 또 허락될까?' 싶을 정도로 즐거운 배움과 경험의 시간으로 남아 있다.

설악산에서 익힌 셀프 리더십, MBA 리더십 개발



연세 MBA는 2011년 여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설악산에서 셀프리더십 체험을 진행했다. 이는 여름 학기에 개설된 '리더십 개발' 교과목으로 배성주 교수(오피레이션 전공)와 노현탁 교수(매니지먼트 전공)가 각각 지도교수를 맡았다. 또한 아웃워드바운드코리아의 전문 강사들의 세밀한 운영 관리가 뒷받침되었다.

프로그램은 암벽등반 체험, 대청봉 등반 후 자기 성찰 시간으로 이어졌다. 배성주 교수는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다"면서 "몸과 마음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팀을 위해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노현탁 교수는 "전통적인 리더십의 틀에서 벗어나 다수가 참여하는 리더십,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상황적 리더십(Situational leadership),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창발적 리더십(Emergent leadership)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심상선(Global MBA 2010) 원우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듭할수록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를 생각하는 원우들과 함께한 3박 4일은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리더십과 인간관계론을 완벽하게 느낀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EMBA 프로그램의 핵심 요체,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액션러닝은 EMBA(Executive MBA) 2년간의 교과과정 전체를 통합하고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현업에 실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과목 운영에는 연세경영의 교수진 8명,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 및 현업 전문가 20여 명, 교육공학자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액션러닝 수업은 1년간의 기초학습이 종료된 3학기부터 시작해 졸업 학기까지 계속된다. 학생들은 각자가 당면한 경영현장에서 주요 이슈들을 연구과제로 설정한 후 교수진 및 현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창의적 해법과 실천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이 과목은 당장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자체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이는 학생 스스로 영구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정교하게 설계된 액션러닝은 2011년 처음으로 실행되었다. 대부분 학생들은 각자가 당면한 경영현장 이슈들을 개인별 과제로 풀어나간 반면, 현재 모바일게임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동원 원우(에이앤비소프트 대표)는 다른 3명의 원우와 함께 자신의 사업체를 컨설팅했다. 최 원우는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조직적인 문제를 고민하던 차에 수업을 활용해 조직과 인사 분야에서 20~30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급 원우들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최 원우는 "조직원들로부터 외부의 자극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성숙한 조직 문화를 배운 것이야말로 이 수업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경영은 사람에 대한 통찰"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팀원은 이용희, 임규원, 정의현 원우였다.

시대를 이끄는 전문성과 진리 탐구의 노력

심오한 학술의 이론과 그 정밀한 응용 방법을 연구해 21세기가 요구하는 기업 환경을 분석하는 경영학자를 양성하는 곳. 연세경영의 석박사 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최적화된 교육 환경에서, 도출시대를 이끄는 전문성을 기르고, 특수 학문의 틀을 넘어서 보편적 진리에 이르는 배움을 추구하고 있다.

연세경영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정화 동문이 2011년 2월 호주국립대학교 (AN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로 임용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호주국립대는 2011년도 <QS>와 <Times>이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 평가에서 각각 26위와 43위에 오른 호주 최고의 대학이다.

이 동문은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학사,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 경영대학 손성규 교수의 지도 아래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공시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논문으로 2005년 2월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전공은 회계학 중 재무회계이다. 현재 그는 호주국립대 경상대학 회계학

과에서 석사과정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ing’을 강의하고 있다.

영어가 모국어인 호주에서 내국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 생각한 이 동문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 숫자와 관련된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회계학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는 순수 학문인 동시에 경제 활동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실리적인 학문이라는 것이 이 동문의 생각이다. 그는 이러한 학술적 노력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 동문은 “최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요구와 함께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회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제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재무회계, 감사 품질 등을 연구하여 회계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화 교수는 호주국립대 임용 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호주국립대 교수로 임용

이정화 동문(2005년 회계학 박사 취득)



START-UP의 요인과 특성, 창업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가 목표

표철민(2012년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2012년 1학기에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는 학부 시절부터 청년 사업가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중학교 3학년 때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 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당찼던 그는 2006년 동기들과 함께 연세대 창업센터에서 위자드웍스를 창업하고, 성장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인화 포털 사이트인 위자드닷컴을 야심 차게 선보인 그는 2008년 이후 소통형 광고와 정보 제공의 묘미를 가미한 위젯 사업을 통해 위젯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위자드웍스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하루 4천만 개의 위젯을 제공하며 지난 2011년 20대 여성 트래픽 8위에 오르기도 했다.

위자드웍스는 현재 모바일 유틸리티 전문 업체로 변신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지금까지 만들었던 위젯을 바탕으로 200여 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통시킨 표철민 대표는 최근 모바일과 태블릿, PC 등에서 로그인만으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유틸리티 ‘숨(SOM)’을 개발하고 출시에 나섰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틸리티가 모바일에서 다운받는 애플리케이션 1위로 점유율이 무려 60%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이 만드는 조악한 프로그램만 있을 뿐, 모바일에 어울리는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1년의 기간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유틸리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학부를 마친 표철민 대표는 졸업과 함께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정보시스템 전공으로 입학했다. 그가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학업을 잇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스물두 살부터 일에 매달려서 학창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문방송학과 함께 이중전공으로 경영학을 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표철민 대표는 학업을 통해 START-UP의 조직과 기업 문화를 만드는 요인을 깊이 있게 연구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창업 기업의 기업문화 특성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데,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는 START-UP의 경험자로서 이 분야에 관심이 무척 크다.

“START-UP을 해본 입장에서 제대로 연구해 START-UP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에 어울리는 창업 기업의 요인과 특성을 분석해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표철민 대표는 경영학과 석박사 과정의 공부에 그가 펼칠 사업에도 상당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은 학업에 충실하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공부를 통해 훗날 교단에 서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다.



초일류 경영을 통해 최고를 지향한다

연세경영의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를 자랑한다. 초일류 경영을 주제로 미래를 보는 탁견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강화로, 기업에게 새로운 비전과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CEO를 양성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의 2011년 주요 이슈.

최고경영자과정, 초일류 경영 커리큘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은 2015년까지 Global Top 50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강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전면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초일류 경영을 교육 주제로 하되 국내 최초로 '사장학'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강의 구성과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최근 New Normal 경제로의 진입과 산업 내 혹은 산업 간 융복합화로 경쟁과 가치 창출의 범위와 방법이 경영학 태동 이후의 변화 추세를 초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전통적 경영학 자체만으로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종합적·다면적 사고력 증진과 이를 지원하는 지식과 지혜의 폭과 깊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 이에 따라 통섭을 이해하고 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경영자 양성을 위해 AMP는 경영 시야 확대, 경영능력 배가, CEO 소양 확대라는 3가지 교육 목표를 정했다. AMP의 강의는 인문학적 지식을 제고하는 초일류 사고 모듈, 향후 시장과 기술 등의 변곡점 등을 이해하는 미래 변화 모듈, 사람과 사업과

전략의 주요 핵심을 제공하는 경영 에센스 모듈, 오너와 전문경영자 차이와 오너로서의 능력을 배가하는 오너 사장학 모듈, CEO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CEO 소양 모듈이라는 5개 모듈과 한중일 비교라는 특별 주제를 갖고 있다. 또 강의하는 교수와 강사 선정은 AMP 원우들의 일정한 강의평가 점수(기준 점수) 이상 받은 분만 초청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AMP 원우 간에 전문성을 공유하는 Mutual Learning 시간을 두고 있으며, 경영 등 기초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선택제를 실시해 필요한 과목만 들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타 학교에 없는 요트, 사진, 와인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CEO가 한 차원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연기 AMP 주임교수는 "연세대 최고경영자과정은 교수에게는 최고경영자에게 어필하는 이론 개발의 기회를, CEO에게는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지식과 지혜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CEO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재충전 속에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개발하는 동호회 활동

최고경영자과정은 프로그램 개편의 일환으로 동호회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취미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생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 2011년에는 사진과 요트, 2012년부터는 와인 동호회가 추가되었다. 동호회는 수업 1시간 전에 와서 활동하되 요트는 요트 면허를, 사진은 전문기관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71기 요트동호회가 제4회 BMW배 '2011 Seoul International Regatta' 대회 멀티클래스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의 수상은 짧은 동호회 활동 실력만으로 거둔 것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사진 동호회는 수료식 때 졸업 작품전을 개최해 지금까지 쌓은 기량을 뽐내었다.



요트를 통해 열정의 불씨를 당기다

요트_이강만 상무(71기 동호회 회장)



흔히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골프 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입과 후 너무 잘 짜인 학습 모듈과 우수한 강사진으로 생각지 못한 알찬 지식과 영감을 얻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처음 도입한 동호회 활동, 그중 요트동호회는 특별하고도 유익한 경험이었다.

요트는 부유층만 하는 호사스러운 스포츠가 아니라 모험을 즐기는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다. 실제로 한강 요트클럽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요트의 매력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호회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교육 2개월 만 만에 필기와 실기에 연달아 응시해 단번에 요트 면허를 취득한 일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AMP 수료 후 원우 17명으로 동호회를 새로 구성해 회장을 맡게 되었다.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700요트클럽과 협의해 특별 연간회원제를 도입했고, 회원 12명이 등록해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요트를 운행하게 되었다.

바쁜 일상의 여유를 즐기다

요트_이성우 대표(72기)



'요트'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롭고, 어렵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무리익을 때 비로소 소개된다는 고급 스포츠, 혼자서는 즐기기 힘든 요트를 나는 연세대학교 AMP, 요트 동아리 덕분에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700요트 클럽 덕에 서울에서 이용하기도 참 편리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요트, 언제나 멀리서 바라만 보던 한강을 누비고 다니노라면, 그야말로 '바쁜 일상 속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사진,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

사진_신태성 대표이사(72기, 수료전시회 대상 수상)



대학 때 사진부에서 잠시 활동했지만, 이번처럼 체계적으로 전문가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건 처음이라 개인적인 실력과 안목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카메라 촬영 원리, 조작 방법, 프레임 잡는 법, 화면 구성, 사진에 스토리 심는 법 등 사진 한 장이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베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사진에 푹 빠지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김남수 교수님의 출사수업은 사소한 이야기라도 구성에 따라 훌륭하게 사진에 담아내는 교육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최첨단 경영학 지식을 통한 경영자 교육의 완성

1999년 첫발을 내디딘, 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경영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경영자교육 전문기관인 상남경영원. 2011년 상남경영원은 다양한 연구와 개발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완성해 강화되고 발전된 경영자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2011년 연세대 자율운영기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상남경영원이 연세대 기획실 평가감사부가 실시하는 2011년 자율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도를 평가 연도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연세대학교 내 자율운영기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상남경영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연세대학교 김한중 총장과 우수 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2년 1월 26일 언더우드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상남경영원은 지난 2004년, 2007년, 2010년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재직자 훈련기관인 상남경영원이 2010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2008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상남경영원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현장 평가, 수요자 조사, 지방관서 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된 심사에서 교육운영 및 기획, 훈련실적, 교수진, 시설, 수요자 만족도 등 각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수많은 대학교의 재직자 교육기관 중 연세대 상남경영원만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상남경영원이 수준 높은 전문 경영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가적인 공인받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격년으로 시행하는 훈련기관 평가는 교육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훈련기관 간의 자유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제도이다. 이번 2010년 평가에는 전국의 350개 교육기관이 평가에 응시해 약 10%에 속하는 3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2011년도 신규 개설 위탁과정 개설

상남경영원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모집과정과 기업별 특성 및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위탁과정,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연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1학년도에는 8개의 모집과정과 21개의 위탁과정을 운영했으며, 이 중 7개 교육과정이 신규로 개설되었다.

2011학년도 위탁과정 추이 중 두드러진 특징은 총 7개 신규 과정 중 4개 과정이 금융업종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금융 회사들이 급변하는 경영·경제 환경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 경영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신규로 개설된 위탁과정은 IBK 기업은행 참! 좋은 리더 과정, 삼성증권 GRM 과정, 대우증권 부부장 양성과정, LG패션 MBA과정, SKEC MBA 과정(SK건설), SIL Biz-Leader과정(삼성화재), SBS 차세대 리더 육성 과정 등이다.

2011학년도 위탁기업



지식의 탐구와 응용으로 미래를 이끄는 최고의 전문가들

연세경영은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정밀한 응용 방법을 연구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도 연세경영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활동과 지원, 다양한 세미나 활동과 국제 교류, 그리고 훌륭한 교수진 채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펼친 넷 커머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는 <매일경제>의 후원을 받아 2011년 5월 3일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넷 커머스: 사회적 영향과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넷 커머스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Zsolt Katona(UC Berkeley Haas Business School), David Bell(UPENN Wharton School of Business), 그리고 Jinhong Xie(University of Florida) 교수 등이 연사로 초빙되어 넷 커머스와 마케팅 전략, 넷 커머스의 성공 요인, 사회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가치 창출에 대해 발표했고, 학계·산업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영연구소는 넷 커머스가 많은 기업의 본질을 바꾸어나갈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에, 이를 둘러싼 공통 관심사와 이해를 나누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의 장 싱가포르경영대학과 마케팅 공동 콜로키움 개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는 2011년 12월 2일 CJ E&M사의 후원으로 상남경영원 파인룸에서 싱가포르경영대학(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과 함께 'Expanding Marketing Research Frontiers in Asia'를 주제로 마케팅 공동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싱가포르경영대학의 해나 장(Hannah Chang), 카필 툴리(Kapil R. Tuli)와 아닐반 무쿨지(Anirban Mukherjee) 교수, 그리고 연세대 경영대학의 이경미, 최정혜 교수가 참여해 최신 연구 내용들을 발표했다. 포럼 후, 두 대학의 교수진이 상암동 CJ E&M사를 방문해 최신 4D 극장 체험 등 각종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수진과 관련 업계 기업인들은 CJ 산하 패널 디스커션을 열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마케팅 이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학술행사는 아시아 경영대학을 선도하는 연세대 경영대학과 싱가포르경영대학이 상호 학술교류를 통해 두 학교 간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국내외 다양한 세미나 개최

2011년도 세미나 개최 건수가 국내 69회, 국외 22회 등 총 91회에 이르렀다. 세미나 개최는 2010년 73회(국내 45회, 국외 28회), 2009년 39회(국내 23회, 국외 16회)와 비교해 매년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활발히 개최되는 세미나는 연세경영의 연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연구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세경영 교수진의 2011년 연구 논문

연세경영 교수진은 2011년 국제 23편, 국내 6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발표는 전년도 국제 21편, 국내 51편보다 약 15%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국제우수학술지 게재는 총 13편으로 전년 11편보다 2편이 더 게재되었다. 이는 연세경영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구 실적 평가 시스템, 해외 석학 초빙 및 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우수 교수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2011년 국제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김영찬, 김진우 교수

Driving Factors of Post Adoption Behavior in Mobile Data Servi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4(11):1212-1217.

김준석, 임건신 교수

The Role of IT Human Capability in the Knowledge Transfer Process in IT Outsourcing Context, *Information & Management*, 48(1): 53-61.

노병탁 교수

Consistency in Meeting or Beating Earnings Expectations and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1: 37-57.

노현탁 교수

Bridging Domains in Workplace Demography Research: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Management*, 37(2): 521-552.

서길수 교수

What if Your Avatar Looks Like You? Dual-Congruity Perspectives for Avatar Use, *MIS Quarterly*, 35(3): 711-729.

손재열 교수

Out of Fear or Desire?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Employees' Motivation to Follow IS security Policies, *Information & Management*, 48(7): 296-302.

오원석 교수

An Odyssey into Virtual Worlds: Exploring the Impacts of Technological and Spatial Environments on Intention to Purchase Virtual Products, *MIS Quarterly*, 35(3): 789-810. Influence of Industry Characteristics on 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7(4): 99-127.

이경미 교수

Stereotype Threat in the Marketplace: Consumer Anxiety and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8(2): 343-357.

이문규 교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mployee-Company Identifi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95(4): 557-569

이호근 교수

IT Capabilities, Process-Oriented Dynamic Capabilities,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2(7): 487-517

임일 교수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echnology Adoption Testing the UTAUT Model, *Information & Management*, 48(1): 1-8

최정혜 교수

Preference Minorities and the Interne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8: 670-682



2011년 연세경영 교수진의 활약상

교수진의 활발한 학회 활동과 사회 활동

연세경영 교수진은 경영 관련 학회의 발전을 위해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동 교수(재무 전공)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으로, 연강흠과 임일 교수(정보시스템 전공)는 각각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지능정보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차기 학회장으로 당선된 교수가 다수 있어 연세경영 교수진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박홍수 교수(마케팅 전공)가 한국경영학회 2013년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국경영학회는 경영학 분야별 학회 50여 개가 모여 구성된 연합학회로 크기와 영향력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다. 박 교수는 '즐겁고 도움을 주는 경영학회', '지역에 바탕을 두고 세계적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경영학회', '산업현장과 함께하는 경영학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현 교수(오퍼레이션 전공)는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2년부터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 교수는 학계·산업계 회원들의 참여 독려, 국제학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 케이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영렬 교수(국제경영 전공)는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박 교수는 재임기간 중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BRICs 연구회 활성화, 글로벌 CEO 포럼 등 전문가 포럼을 역점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와 연계된 활동도 활발하다. 김정동 교수(재무 전공)와 신진영 교수(재무 전공)는 각각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로, 연강흠 교수(재무 전공)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김진우 교수(경영과학 전공)는 SBS 콘텐츠 허브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손성규 교수(회계 전공)는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일 교수(정보시스템 전공)는 (주)엘컴스 비상근이사직을 수행했다.

강의우수 교수상 및 우수연구실적상

2011년 1학기 연세경영 강의우수 교수로 학부과정은 손재열(소규모 강의), 양혁승(중규모 강의), 신동엽(대규모 강의) 교수, MBA는 서길수(소규모 강의), 이호욱(대규모 강의) 교수, 그리고 일반대학원은 김동훈(마케팅 전공)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2학기에는 학부과정 김성문 교수(소규모 강의), 박현준 교수(중규모 강의), 장진호 교수(대규모 교수), GMBA는 박용석 교수, EMBA는 박영렬 교수, CMBA/FMBA 소규모 강의는 이동진 교수, CMBA/FMBA 대규모 강의는 허대식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일반대학원은 오홍석 교수가 선정되었다. 2011년 2학기부터 MBA는 소규모, 대규모로 나누어 선정하던 것을 프로그램별로 GMBA, EMBA, CMBA/FMBA 소규모 및 대규모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오원석 교수(정보시스템 전공)는 연구 실적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우수연구실적표창상을 받았다. 이 상은 연세대학교 연구처가 선정하고 수여했다.



임용기 교수 정년퇴임, 명예교수 추대

연세대 경영대학 임용기 교수(재무 전공)가 32년간 연세대학교의 봉직 생활을 마치고 2012년 2월 23일 정년퇴임했다. 임 교수는 Chardon State College, Nebraska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각각 학사와 MBA 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에서의 교수 경력을 거쳐, 1980년 3월부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봉직 기간 중 상경대학 교학과장, 경영대학원 증권 금융 전공주임 교수, 경영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영학 교육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증권학회 이사, 한국재무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재무학 발전과 연구 수준 향상에 공헌했고, 한국증권거래소 자문위원, 한국펀드평가 자문위원, SEI Asset Korea Capital Management 감독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펀드 산업과 자본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임용기 교수는 32년간 봉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10여 년 전, 학부 졸업생이 자신의 첫 월급이라면서, 새 지폐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준 일이다. 그는 그 돈을 도저히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아프리카 구호기금에 기부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15년 전 '증권시장론'이라는 학부 수업을 마치고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다. 경영학도가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던 학생은 경영학의 의미를 찾지 못해 결국 사법 시험으로 진로를 바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할 수 있었다.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장을 포기하기 아쉬워 틈틈이 전공을 수강했는데, 임 교수의 수업을 듣고서야 비로소 경영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감사의 편지였다.

임 교수는 정년퇴임에 즈음해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경영학을 통해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한 답을 구하지 말며, 사고하는 훈련을 쌓고, 경영학 이외의 과목을 최대한 많이 수강하며, CFA, CPA 등의 자격증 스펙 쌓기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스펙 만들기에 들어갈 시간 대신 인문학 독서, 여행 등을 권하며 평소 외국어 공부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용기 교수는 교육 및 학술 부문, 봉사 부문에서의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연세경영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우수 교수진



정예림 교수(경영과학 전공)

“학생들의 역량 발전에 힘쓸 것!” 2011년도 1학기 정예림 교수가 연세경영 신입교수로 부임했다. 정 교수는 1995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면서 연세경영과 인연을 맺었다. 재학 중 경영학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관심이 높았는데, OR, Finance 등 경영학의 여러 분야가 수학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수학과를 부전공하면서 프랑스 유학을 결정했다. 프랑스 파리 1대학 응용수학과 2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석사를 마쳤고, 같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교수는 파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과 비교하면 연세대 학생들은 참 똑똑하고 겸손하고 또 열심히 반면 교수나 조교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교수의 관심 연구 주제는 조합 최적화의 역 문제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이론에 치중되었는데, 이후에는 역최적화의 응용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지현 교수(매니지먼트 전공)

“모교 후배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김지현 교수가 2011년도 2학기 연세경영 교수진에 합류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부를 나와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에서 경영전략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에 부임한 김 교수는 학생들을 보면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조언해주고 싶은 후배라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는 모교에서 근무하는 특권이자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의 관심 분야는 기업이 탐색(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내의 갈등과 반목이 기업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의 연결고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함께 하는 연세경영



2011학년도에도 연세경영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 행사와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연세경영이라는 강한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단결과 화합과 웃음 속에서 연세경영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한 다채롭고 풍요로운 시간. 연세경영은 언제나 하나이며 언제나 함께합니다.

“새 시대의 리더들에게 바친다”

맥킨지 도미니크 바튼 회장의 축사와 함께한 2011학년도 학위 수여식



20년이 인류 역사의 대번곡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과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졸업생들이 앞으로 해야 할 아홉 가지 일을 조언했다.

그가 꼽은 리더로서의 인성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견지하는 것, 폭풍 속에서도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공인으로서 언제나 신중함을 기하는 것, 그리고 마라톤과 단거리 스프린트 경기 모두에 대비하는 자세로 신체적·정서적 스타미너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 “한 눈에는 현미경을, 다른 한 눈에는 망원경을 사용하라, 추세 변화에 대비하라, 철인3종 선수가 되라, Receptor이자 Connector가 되라”는 그의 주문은 연세경영 졸업생들이 스스로를 “Chief Reality Tester”로 여기는 리더가 되길 바라는 진솔한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 바튼 회장은 연세경영 졸업생들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일랜드의 민요시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작년 졸업식 때부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온 연세경영의 내리사랑 캠페인인 졸업생의 선물 ‘클래스 기프트’ 증정식도 진행되었다. 동문 대표로 김영진(경영 75, 경영대학 동창회 회장, ㈜한독약품 회장) 동문이 졸업생 대표인 김영근(MBA 원우회장) 졸업생에게, 김 졸업생 대표는 신입생 대표 표철민(경영학 석박사 통합과정, ㈜위자드 웨스 대표) 신입생에게 후배 사랑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EMBA 1기 졸업생 34명은 연세경영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은 EMBA Class Gift 1억 2백만원을 경영관 건축기금으로 기탁했고, 연세경영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조용진 EMBA 원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경영학 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박사 5명, 석사(M.S.) 32명, 석사(MBA) 235명, 학사 317명으로 총 589명이었다. 학위수여식에 참여한 졸업생 400여명은 한 명 한 명 단상에 올라가 학위기를 받고 박상용 학장, 도미니크 바튼 회장 및 교수진과 일일이 축하와 감사의 악수를 나누었다.

학부 최우등졸업자 윤수진(경영 07) 씨는 글로벌 선도 전자회사에 입사해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연세 경영대생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즐겼고,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교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다”며 “다양한 수업의 팀 프로젝트, 베트남에서의 uGET 활동, BIT 학회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연세경영’이라는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정을 떠나 는 것 같다”고 졸업의 소회를 전했다.

또한 경영대학 동창회장상을 수상한 학사과정 최우등졸업자 현지은(경영 07) 씨는 조만간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입관리자과정 57기로 입교할 예정이며, “학부 시절 훌륭한 교수님들과 장학제도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학부 시절 동안 받은 모든 것들을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는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회계학 박사(Ph.D) 채수준

연세대에 와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연세대에는 이처럼 학생들을 배려하며 학생들을 걱정하는 훌륭한 교수님이 많이 계신다. 새내기 여러분들 역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케팅분과 석사졸업자(MS) 신현준

막상 졸업을 해서 정든 학교를 떠나려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것들이 많다. 지난 2년간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YSB에 감사드립니다.

Finance MBA 졸업자 유태인

지식 기반의 확충은 물론 수준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할 좋은 원우들을 만난 것은 인생에 있어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학부 졸업자 정재욱(경영 05)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남들보다 1~2년 늦더라도,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배들도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길 바란다.



축사 담례로 전달된 바튼 회장의 인물 모형

2012년 2월27일 오후 2시, 2011학년도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년째 시행하는 졸업 축사 (Commencement Speech)와 참석 여부 사전 확인에 따른 지정좌석제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졸업생 589명 중 67%인 397명의 학위수여자가 참여하여 학부모, 교수, 외부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졸업의 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박상용 학·원장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욱기 42장 말씀을 인용,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학생들에게 욱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연세경영 홍보대사 BizYON이 제작한 동영상상을 통해 축사자로 초청된 도미니크 바튼 McKinsey&Company 글로벌 회장과 맥킨지 컨설팅을 소개함으로 축사자에 대한 졸업생과 학부모 및 내빈들의 이해를 도왔다.

바튼 회장은 “새 시대의 리더”라는 주제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축사를 전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이 시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이며, 앞으로 펼쳐질

2011학년도 동문 초청 행사들

화합된 분위기에서 연세경영의 저력을 확인하고 선후배 간의 우의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던 다채로운 행사들. 2011년, 유쾌하고 뜻깊었던 동문 초청 행사의 현장 속으로 떠난다.



21세기 경영 패러다임을 읽는다 연세경영 동문초청포럼

지난 5월 24일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연세경영 동문초청포럼'은 '초경쟁 환경과 21세기형 경영패러다임'이라는 주제 아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영학과 동문 100여 명이 자리해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의 강의를 맡은 신동엽 경영대학 교수는 '창조적 혁신 경쟁시대의 경영'이라는 주제 특강에서 기업 경영진이 개선 집착증과 근시안적 경영을 지양하고 역량 파괴적 환경변화의 위협 아래에서 창조적 혁신의 조직 문화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구현 박사(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KAIST 초빙교수)의 사회로 이금룡 박사(코글로닷컴 대표이사), 김용아 파트너(맥킨지 컨설팅), 신동엽 교수가 '21세기형 경영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동문의 달 5월을 빛낸 연세경영 Family Day

지난 5월 28일 동문과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경영 Family Day'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자녀교육 특강, 핫도그 파티와 캠퍼스 보물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동문과 가족들이 캠퍼스 이곳저곳에서 단란한 한때를 보냈다.

1부 순서에는 김동노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2012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설명회 및 자녀 교육 특강'을 펼쳤다. 김 처장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동문들에게 연세대학교의 강점을 소개한 뒤,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 연세대학교가 입학 전형에서 중시하는 점들을 설명했다. 이후 청송대로 자리를 옮겨 핫도그 파티 시간을 가졌다. 박상용 경영대학 학장과 보직교수들은 요리사 복장으로 경영대학 홍보대사 BizYON 학생들과 함께 직접 핫도그를 만들어 동문들에게 나눠 주었다. 동문들과 가족들은 야외에서 핫도그와 피자를 먹으며 가족 소풍의 기분을 만끽했다. BizYON 학생들은 동문 가족들을 위해 가족사진을 찍어주며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였다. 3부에서 동문 가족들은 연세대학교 홍보대사 인연(人延) 학생들의 안내로 학교 곳곳을 관람했다. 투어 중간중간에 숨겨진 120여 개의 보물찾기는 또 다른 흥미와 재미를 선사했다.

'연세경영 Family Day'를 통해 동문들은 모처럼 모교 캠퍼스를 방문해 새로운 감회를 느꼈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김성준(경영 91) 동문은 "졸업한 지 20년 정도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오니까 기분이 새롭다"며 "동문들을 위해 학교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용 학장은 "수많은 동문들을 배출하는 연세대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은 동문들의 직·간접적인 도움과 기여로 나날이 진일보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학교는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선배들과 함께한 시간, 든든한 위안과 자부심을 갖다

글 오명은(BizYON 8기, 연세대 경영대학 홍보대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급히 홍보대사 단체 티셔츠를 입고 학교로 출발했다. 행사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이 행사가 경영대학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큰 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amily Day는 연세대 경영대학 학부와 MBA의 동문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동문 자녀를 위한 특별 입학설명회도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게임도 하는 즐거운 시간이다. 300명에 가까운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해 우리 홍보대사들이 행사 도우미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테이블을 준비했다. 이후 준비된 데스크에서 선배님들에게 '연세경영 사랑' 브로치와 휴대용 방식을 나눠드리느라 바빴다. 행사에 참석한 선배 중에는 학장님과 부학장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아빠의 교수님이라며 학장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동문 선배들과 함께 온 아이들이 자기자기하게 디자인된 브로치를 서로 비교하며 고르는 모습이 귀여웠다.

입학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청송대로 이동해 오늘의 하이라이트 핫도그 행사를 준비했다.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은 우리가 먹으면서 즐겁게 준비를 했다. 우리는 주방장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입은 서로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아이와 함께 온 선배님이 우리도 경영대학 학생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웃으면서 "다들 후배들이네" 하며 수고한다며 격려해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동문 선배들과 내가 정말 친밀한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순서는 학교 투어 및 보물찾기와 선물 증정 순서였다. 아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나중에 우리 학교에 들어와 마음껏 교정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이동 장소인 광혜원에서 선물을 증정하고 행사를 마쳤다. 날씨도 무척 좋아 광혜원에 소풍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삼 처음 입학한 날처럼 학교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든든한 선배들이 많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연세경영인의 '우리는 하나'라는 유대감 연고전 동문광장 한마당

연고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24일, 백양로에서 '2011년 정기 연고전 동문광장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 자리를 더욱 활기차게 하기 위해 우리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은 오후 6시부터 핫도그 부스를 운영했다. 경영대학(원) 부스에서는 경영대학 교수, 직원, Global MBA 재학생들이 직접 핫도그를 만들어 연고전의 피날레를 즐기는 재학생, 동문 가족들을 대접했다. 총동문회에서 지원하는 맥주와 안주도 무료로 제공해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경영대학 핫도그 부스에서는 플라로이드 즉석 사진 증정으로 연세경영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연고전의 마지막 감동을 함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행사는 매해 연고전의 마지막 날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가수 '씨스타'의 기념 공연이 있었고, 48대 총학생회 주최로 "제2회 연세대학교 동문 회장배 백양로 가요제(슈퍼스타 Y)"가 열려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이번에는 비록 1승 1무 3패라는 아쉬운 전적을 남겼지만, 모두가 하나 된 동문광장 한마당은 승패를 떠나 모두에게 값진 추억을 남겼다.

경영대학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는 경영대학 동기회 임원 초청 만찬

지난 9월 30일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경영대학 동기회 임원 초청 만찬 행사를 가졌다. 김한중 총장 초청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동기회 대표 및 총무 등 총 70여 명이 자리했다. 박상용 학장은 동기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동문들께 감사를 전하며, 경영대학 건물 신축현황을 알리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한중 총장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대학 평가에서 연세대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한 후, 경영관 신축은 과거 연세경영의 명예를 이어 미래의 연세경영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김영진 경영대학 동창회장(경영 75, (주)한독약품 회장)이 건배를 제의했고, 송자 경영대학 동창회 고문(상학 55, 前 연세대 총장)은 동문들이 힘을 합쳐 건물 신축에 즐겁게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독려했다. 만찬에 이어진 모교 음악대학 교수들의 축하 공연 후, 박상용 학장은 신축될 경영관의 개요와 건축 콘셉트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좋은 경영관 건물을 지어 후배와 제자들을 잘 키우겠다"고 이번 만찬의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후배님 사랑합니다" 2011학년도 연세경영 장학생 후원의 밤

지난 11월 4일 오후 6시 대우관 각당헌에서 '2011학년도 연세경영 장학생 후원의 밤'이 개최되었다. 2011년 두 번째를 맞이한 장학생의 밤 행사에는 장학생 및 학부모 400여 명이 참여했다. 장학생과 학부모들은 박상용 경영대학 학장, 김영진 경영대학 동창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자녀의 친구들, 친구 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갔다.

박상용 경영대학 학장은 환영사에서 장학생들을 축하하며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 "먼저 부모의 경제력 유무를 떠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둘째,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장학금을 후원해준 동문 선배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으로 장학생들에게 연세경영의 장학제도를 명확히 이해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과 경영관 신축기금을 모으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는 김영진 경영대학 동창회장(경영 75, (주)한독약품 회장)은 "요즘은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한 시대로,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엄영호 경영대학 부학장은 연세대 경영대학이 운영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소개하고, 경영대학 동창회가 추진하는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을 설명했다. 이는 졸업한 선배 30명이 한 명당 하루에 1천원씩 기부해 한 달에 3만원을 모아 후배 한 명을 4년 내내 후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설명에 이어 장학생들을 일일이 호명한 후, 최우등생, 각 학번 대표 장학생, 경영대학 특별 장학생들에게 시상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꿈수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어준 초청 특강이 연세리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이 개최되는 동안 다른 강의실에서는 '학장과 학부모와의 대화' 시간도 열렸다. 학장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장시간 토론했고, 학교와 가정의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연세경영 장학생 후원의 밤은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며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연세경영인들의 나눔의 장입니다”





“전임 동창회장님들께서 물려주신 사업, 유지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김영진(경영 75, (주)한독약품 대표이사 회장)

지난 2011년 3월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 동창회장으로 김영진 동문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24대~26대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역임을 비롯해, 10년 넘게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 동창회 부회장직을 맡아왔으며, 경영대학 신입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등 모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김영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독약품은 지난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여러 상을 제정하는 등, 김회장은 사회에서도 자랑스러운 연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년간 동창회를 이끌 김영진 회장의 계획과 제약회사 CEO로서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상경·경영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인 ‘블루버터플라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경영대학 신축 건물을 위한 기금 마련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동문회 활동을 강화해 젊은 동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SB 상경·경영대 동창회는 후배 사랑과 동문 응집력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유명합니다. 그런 만큼 동창회장의 어깨가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창회 활동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지난해 3월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 동창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여러 훌륭한 선배님들도 많은데 제가 동창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 동창회는 조직이 잘 되어 있고 활동도 활발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 전임 동창회장님들께서 이룬 결과입니다. 때문에 동창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까지 힘써주신 역대 동창회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2년의 동창회장 임기 동안 전임 동창회장님들의 업적을 유지하고 내실 있게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경·경영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인 ‘블루버터플라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경영대학 신축 건물을 위한 기금 마련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동문회 활동을 강화해 젊은 동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경·경영대 동창회는 60년대 학번 선배들이 주축이 돼 동창회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주셨습니다. 이제 75학번인 저와 함께 70~80년대 학번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YSB 회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학교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 멘티들에게 값진 멘토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경영대 재학생에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요즘 신세대는 각자의 개성과 장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본 신세대의 공통점이 가장 큰 약점은 프로 액티브(Pro-active)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다들 경험도 많고 능력이 좋아 일을 시키면 잘해내지만 시키기 전에는 스스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해내는 자세를 가져야 어떤 분야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YSB 경영대학 신입생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연경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영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멘토링을 비롯해 학교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여러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선배들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미래의 후배들에게 다시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연세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후배님들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시대의 동문 리더들이 전하는 창의적 리더십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Creative Leadership'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도전정신을 공유하는 특별한 강의에 참여하여 후배 사랑을 실천하였다. 2011학년도에는 고병현 (주)금비 회장, 김수길 JTBC 부사장,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사장, 백우석 OCI 대표이사,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회장, 송자 GUIDE STAR KOREA 이사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문 리더 13명을 초빙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동문 선배들의 특별한 강의에 대한 재학생들의 소감을 전하며 참여해주신 동문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

사심 없는 리더십 김수길 JTBC 부사장 (경영 74)

●
●
민세훈 (경영 06)

미디어의 판도가 바뀌는 상황 한가운데서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길 JTBC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리더십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Professionalism', 세월이 흐르면서 쌓이는 연륜과 경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처세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적절히 결합되어 리더로서의 자질이 나오는 것이다. 다음은 'Decisiveness', 리더는 판단과 결정을 적시에 해야 한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정책 판단의 실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은 'Vision'이다. 모든 리더는 중요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비전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데에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사실 김수길 선배님의 리더십에서 가장 많이 배운 부분은 리더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그릇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적 리더십이었다. 나 또한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객관적 안목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수길 선배님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후배들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을 보면서, 아낌없는 후원 또한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현재진행형인 창조적 리더십 송자 GUIDE STAR KOREA 이사장 (상학 55)

●
●
정유진 (경영 05)

송자 이사장님은 NPO에서의 리더십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양면의 리더십이다. 비전, 핵심가치, 목표를 이야기할 때는 권위주의적이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면적 리더십은 각각의 양립되기 어려운 면모를 상황별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영역의 리더십에서든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아이디어의 중요성이다. NPO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어느 분야보다 크게 작용한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득보다는 아이디어를 통해 이끌어내는 것이 기부 문화의 '제도화'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설득의 리더십. 기부문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설득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강의는 NPO라는 생소한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송자 이사장의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세대학교를 나온 학생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 역시 앞으로 우리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적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았다.



김수길 JTBC 부사장



송자 GUIDE STAR KOREA 이사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Korean RE 사장

신뢰와 포용,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경영 70)

●
●
신민상 (경영 07)

'검투사 김종훈'. 김 선배님을 설명할 때면 따라붙는 별명이다. 한 나라의 통상장관으로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 상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막중한 업무가 검투사와 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종훈 선배님은 이렇게 덧붙인다. '나만 살고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자가 중요하다'고. 양국 간 이익 다툼에서 균형을 잡아가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게 필수다. 역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김종훈 선배님의 경험과 실무 사례가 한데 어우러진 강연의 핵심은 통상교섭의 당위성과 그것에 필요한 리더십에 있었다.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조직관리 등에 많은 관심이 많은 터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가 승리(win-win)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한다는 통상교섭에서 김종훈 선배님이 느꼈을 고충들이 경영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고,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소통을 통해 좁혀나가는 일은 조직의 핵심 역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 박종원 Korean RE 사장 (법학 64)

●
●
이정민 (경영 07)

Korean RE는 10년 전에는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다. 1998년 IMF가 일어난 직후 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당시 CEO로 박종원 사장이 부임했고 13년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현재 세계 11위의 재보험회사로 성장했다. 박종원 선배님을 처음 뵈는 것은 Korean RE 방문 인터뷰에서다. 한 회사의 CEO를 만나는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설레었다. Korean RE는 등산 경영이라는 특별한 기업문화로 유명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선정된 동경의 회사이다.

박종원 사장은 푸근했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박종원 사장과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감동적인 말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일은 적고 돈은 많이 주는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젊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사용해야 나중에 자신과 사회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취업 준비를 하는 나에게 이 메시지는 가장 가치 있는 조언이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멘토링, 참된 소통과 신뢰로 희망 일구기

연세경영은 지난 2008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 매년 동문 멘토링 행사를 시행하며 졸업 동문과 재학생과의 네트워킹에 힘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엘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신용한 동문(경영 88)이 이끄는 멘토링 네트워크 ‘하쿠나 마타타’는 진정한 멘토링의 표본이 되는 집단으로 손꼽힌다. 하쿠나마타타에는 현재 08학년부터 12학년 신입생까지 80명 가량의 멘티가 등록되어 있으며, 멘토링 참여를 희망한 15명의 타 단과대 학생도 합류한 상태다.



“하쿠나 마타타는 영화 <라이언 킹>에서 등장한 대사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모든 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될 거야’라는 뜻입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통하는 1:1의 소통’을 필두로, 학생들이 젊은 시절에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멘토링을 이끌고 있는 신용한 대표의 말이다. 멤버 간 지속적인 교류는 기본이고, 월 1회 모임과 연 2회 합동 액티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임이나 액티에서는 자체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명사와 어울리며 깊은 교감을

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더욱 효과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브멘토를 두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구성된 멘토링 체계는 보다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되도록 해주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점하고 공유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입이 무거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속내를 털어놓고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꾸 충고하려고만 하면 털어놓기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멘토링은 지적이 아닌 공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 대표는 멘토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경고한다. 멘토링을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의 봉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학생들은 그저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상을 멘토로 원한다. 신 대표는 앞으로도 가슴을 나누는 소통으로, 세상을 바꿀 선의의 피라미드를 완성해가고자 한다. 그 피라미드 안에서 후배들은 건강한 생각을 나누며 정체성을 찾고, 열린 가슴으로 세상에 나아갈 것을 바란다.

하쿠나 마타타의 장점은 지속성과 피드백



김원우 (경영 08)
신입생 때부터 군대 시절, 그리고 막 재대한 지금 까지 4년 동안 신용한 선배님과 끊임없이 교감을 가져왔다. 주고받은 메일만 400통이 넘으며 정기적인 모임 외에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해주셨다.
하쿠나 마타타의 제일 큰 차별성은 지속성과 피드백이다. 사실 주변의 친구들이 속한 멘토링을 보면 1년 이상 모임을 갖는 경우가 흔치 않다. 하

쿠나 마타타의 경우는 정기 모임 외에도 개인적인 만남과 이메일, SNS를 통한 피드백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차별성으로 서브멘토의 운영이다. 나는 미래에셋 황의준 지점장님(경영 88)을 서브멘토로 소개받아, 진로 관련 다양한 고민 심도 있게 멘토링 받을 수 있었다.

사람, 영감, 그리고 꿈



김동심 (경영 09)
하쿠나 마타타의 멘티로서만 2년을 지내오며 배운 것은 사람, 영감(inspiration) 그리고 꿈이다. 멘티로서 얻어가는 것 중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다.
다양한 진로에 계신 선배님들부터, 다양한 꿈과 포부를 갖춘 멘티들까지, 협업과 동행이 키워드로 떠오른 현대 사회에서 이처럼 알차고 끈끈한 인맥 풀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또한 다양한 장점을 가진 100여 명의 경험담과 그 속에 숨은 서로의 공통점들은 스펙트럼 같은 다양한 영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꿈을 이뤄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르침이 있었다.

“2011 멘토링을 경험하며”



멘티 이누리(경영 11)
멘토 김창근 (경영 68, SK케미칼 부회장)
박영숙 (경영 82,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이상수 (경영 95, 대한생명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컨설팅 회사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박영숙 선배님과 함께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션을 진행했다. 멘티들의 미래 계획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 멘티들은 박영숙 선배님과 만남 이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방학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다. 공모전에 출전하고, 국토대장정이나 사업연수, 그리고 해외여행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멘토님들과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짧은 만남을 통해 멘티들은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멘티 홍이연(경영 11)
멘토 유상호 (경영 78,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상학 (경영 80, 다담 디자인 대표이사)
신우진 (경영 99, 코리아리재보험 특종보험부 대리)

많은 사회 경험을 쌓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른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매우 유익했다. 단순히 성공 계획을 넘어서는, 인생에 있어서의 조언도 해주셔서 뜻깊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소규모로 특별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은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멘티 안은영(경영 11)
멘토 이재용 (경영 83, 쌍용제지 회장)
이가슬 (경영 9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기영 (경영 02, 동양자산운용 사원)

멘토링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조언도 전해 듣고, 또 만나기 힘든 높은 학번의 선배님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면서 유익한 경험이었다. 자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멘티 하현열(경영 11)
멘토 조남준 (경영 68, ㈜피제이디자인 회장)
김재훈 (경영 83,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김예희 (경영 94, 스마트세무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멘토들의 의견에 따라 인터넷에 멘토링 블로그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셔서 감사했고, 진로나 학업 생활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관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또 만남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형식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선후배 관계로 발전하는 것 같아 기뻐다. 연세경영 새내기로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학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멘티 김명규(경영 11)
멘토 신원정 (경영 86, 삼성증권 기업금융 사업부 상무)
박천택 (경영 86, 솔트&파트너즈 대표이사)
강예진 삼일회계법인 (경영 98, Senior Associate)

기말고사가 끝난 후 손범수 선배의 토크 콘서트를 관람하는 모임이 있었다. 김광진 선배도 그날 토크쇼의 게스트로 오셔서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 저희 멘토 선배님들은 특별한 경험이나 의미 깊은 활동들을 계획해주셔서 항상 뜻깊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멘티 이용하(경영 11)
멘토 이주열 (경영 70, 한국은행 임원실 부총재)
장석룡 (경영 86, 한영회계법인 상무)
이정환 (경영 96, 한화증권 대치지점 과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친구나 선배한테서는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을 많이 들었다. 당시 영어와 관련해 고민이 있었는데, 멘토 선배들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장래 희망에 대한 조언까지, 고민이 많은 시기에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좋았다.

인문학적 소양과 추억을 쌓은 소중한 기회

학부생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특별한 선물

2011년 5월, 글로벌 경영포럼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MBA 82기 번기욱 동문의 후원으로 수강생 135명 전원이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를 관람하게 된 것이다. 연세경영에서 창의적·윤리적·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강조해온 인문학적·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체험 학습의 기회를 동문이 마련해준 것이다. 수강생의 소감문을 통해 그날의 감흥을 함께 나누어본다.

이상희 (03 경영, 맥킨지&컴퍼니)

오후 3시에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은 처음 관람하는 오페라에 대한 기대로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나 또한 처음으로 오페라 관람을 한다는 생각에 조금 일찍 도착해 안내 책자를 받아 자세히 읽었고, <라 트라비아타>가 뒤마 피스의 <춘희>라는 극에 감명을 받은 베르디가 각색해 만든 오페라라는 것, 길으로는 화려하나 본질적으로는 내적 궁핍함에 갈등을 겪는 한 여성의 삶을 그려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었다.

아름다운 베르디의 오페라

애수가 넘치는 전주로 오페라의 막이 오르며, 무도회를 앞둔 비올레타의 살롱이 펼쳐졌다. 화려한 파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비올레타를 흠모해온 알프레도 제르몽의 '축배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파리 사교계의 꽃으로 오랫동안 방종한 생활을 즐겼던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 거리를 두려 하지만, 이내 이 사내의 진실성과 순결함에 마음이 움직여 처음으로 사랑이 주는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생활과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듯하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비올레타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마저 찾아와 그의 이들과 이별하기를 종용한다. 결국 비올레타는 굳은 결심 끝에 알프레도의 곁을 떠나고, 두 사람은 비올레타의 친구인 후롤라의 가면무도회에서 재회한다. 그곳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연전연승을 거둔 알프레도는 "사랑에는 패했지만 도박에는 이긴다. 돈을 따면 계집을 사서 시골로 돌아갈 테다"라는 말은 내뱉고, 이는 비올레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이어지는 알프레도의 추궁, 격한 비난은 두 사람의 사랑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결국 마지막에 알프레도는 모든 오해를 풀고 비올레타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생명이 경각에 이른 비올레타에겐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하다. 비올레타에게 질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죄 많은 남자의 가

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긴다.

아름다운 극의 여운, 그리고 후배 사랑

유려한 아리아와 주역들의 연기, 화려한 무대 위로 펼쳐진 격렬한 사랑에 대한 감상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짙은 여운으로 남았다. 운명의 굴레를 아무리 벗어나려 애써도 결국은 자신의 과거와 업보를 벗어날 수 없었던 비올레타의 운명은 극 설정을 넘어 너무나 가슴 아픈 감상으로 다가왔다. 또한, 알프레도의 지순한 사랑에 조금 더 확신과 믿음이 있을 수는 없었지 안타까웠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의 끝자락에 너무 아름다운 극과 여운을 선물해준 글로벌 경영포럼 2011 운영진에 감사드린다. 또, 후배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MBA 82기 번기욱 선배님께도 감사드린다. 훗날 글로벌 경영포럼 2011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각자 사회의 주역이 되고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 나 역시 지금 느끼는 감사의 마음을 훗날 후배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배로 성장하고 싶다.



함께 가는 연세 경영



동문들의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연세경영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희망을 만들고 수많은 이들의 정성이 모여 큰 뜻을 이룹니다. 마음을 담은 참된 기부의 힘으로 연세경영의 후배들은 더 큰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경영 교육·연구 기관으로의 진일보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사랑의 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011학년도 경영대학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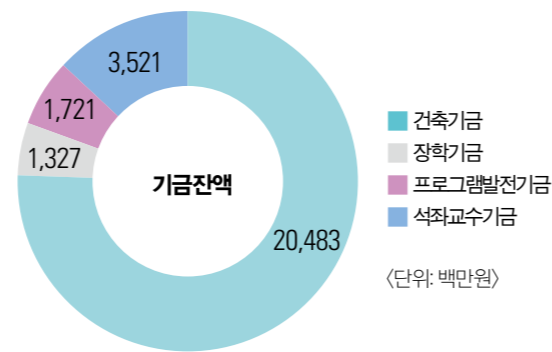
2011학년도(2011.3.1~2012.2.28)에는 총 559건의 신규약정이 등록되어, 27억 7천만원의 기부금 수입이 있었으며, 건축 설계비 등 약 13억 7천만원의 건축관련 지출로 인해 2011학년도 경영대학 기금 잔액은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270억 7천만원으로 마감되었다. 이는 기부금 약정액 중 2012년 2월 28일까지의 실제 입금분을 반영한 것이며, 2011학년도 약정액은 약 72%의 입금률을 보이고 있다.

경영대학 기금 중 건축 기금은 2010학년도 대비 3.45%, 약 7억 7천만원이 증가한 약 205억 7천만원으로 2011학년도 당기 기금 잔액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약정 이행 중인 일부 고액 건축 기금 약정 잔액을 반영하면, 그 액수는 300억 7천만원에 이른다. 블루버터플라이 장학 기금, 경영대학(원) 특별장학기금 등 장학기금 잔액은 전년 대비 11%가 증가하여 13억 7천만원에 이르며, 그 외에도 석좌교수기금은 3%가 증가한, 35억 7천만원, 그리고 분야 발전기금은 2%가 증가된 17억 7천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2011학년도 경영대학기금 559건의 기부 약정 중 약정 금액 기준 56%는 건축기금, 43%는 장학기금이 차지했으며, 약정건수 기준 동문 그룹별 기여도를 보면, 학부가 73%, AMP는 14%, 그리고 MBA가 6%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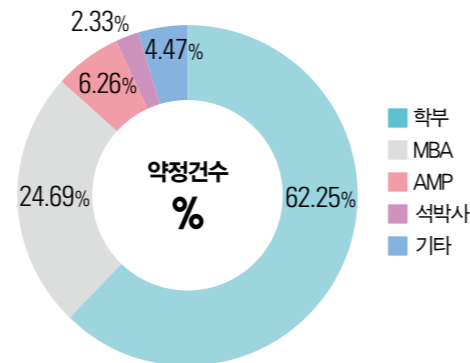
현재 경영대학은 오랜 숙원인 경영관 건립을 위해 550억원 예산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상학교육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을 앞두고, 경영학 100주년 기념 사업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GET 프로젝트(Global Experience Team Project)로 학부, MBA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0% 모금을 통해 경영관을 세우고자 추진 중인 건축 프로젝트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수준 높은 연구 지원, 우수 교원 확보 등 학생들에게 더욱더 창의적이고 탁월한 경영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해줄 재원 마련이 절실한 때이다. 이외에도 현재 30% 선인 경영대학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 더 많은 연세 경영인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대학기금 잔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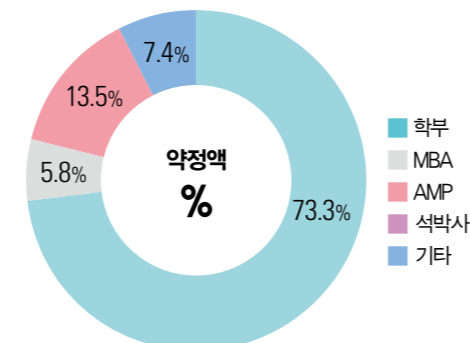


■ 건축기금
■ 장학기금
■ 프로그램발전기금
■ 석좌교수기금
(단위: 백만원)

2011 경영대학 기금 신규약정 동문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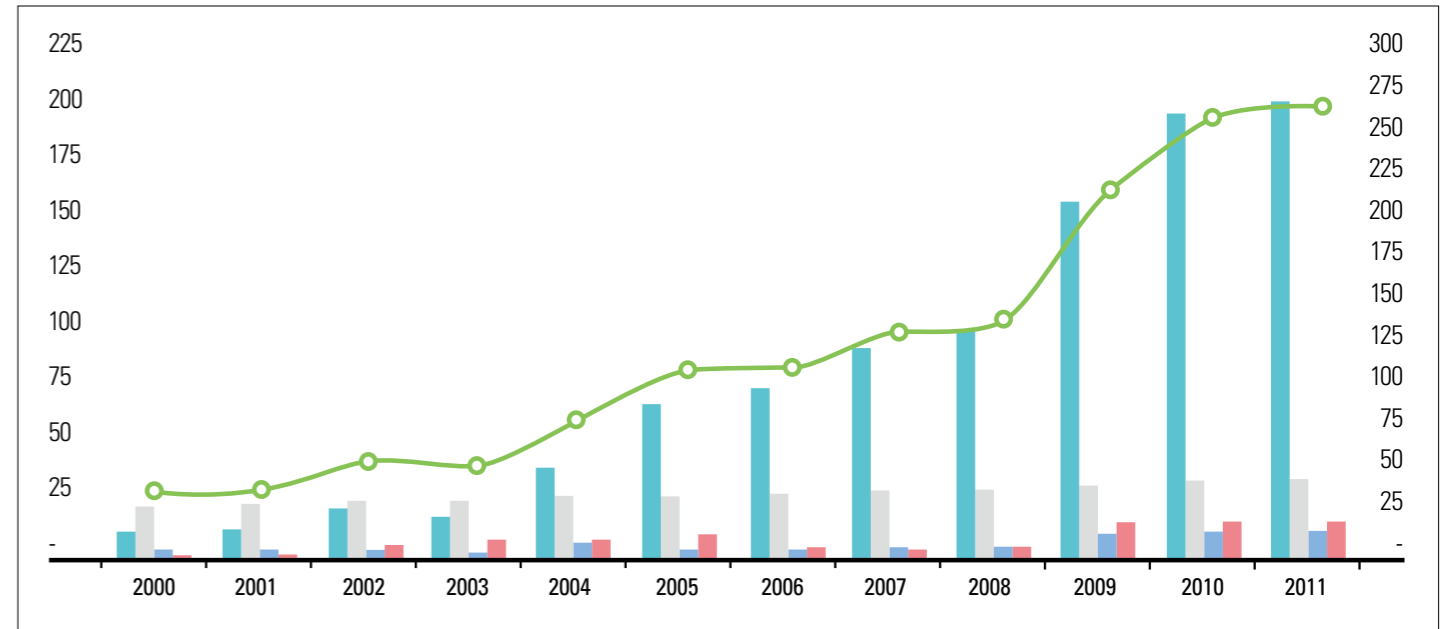


■ 학부
■ MBA
■ AMP
■ 석박사
■ 기타



■ 학부
■ MBA
■ AMP
■ 석박사
■ 기타

건축기금 현황



■ 건축 및 발전기금 ■ 석좌교수기금 ■ 장학기금 ■ 프로그램발전기금 ○ 경영대학 합계 2012.2.28 기준 단위: 백만원

2000년 이후 건축기금 1억원 이상 기부자

2011학년도 1천만원 이상 경영대학기금의 고액 기부는 50건이며, 그 중 학부 이강만(경영74), 권은영(경영75), 최고경영자 과정의 임부자(AMP 43기) 동문이 1억원 이상의 건축기금을 회사하여 1억원 이상 건축기금 기부자 수가 26명으로 늘어났다.

명단은 가나다 순 (2012.2.28 기준)

기부자명	구분	직책
고병헌	경영 64	(주) 금비 회장
권은영	경영 75	(주) 네오티스 대표이사
김승제	MBA 84기/AMP 50기	(주) 이스타코 회장
김영숙	AMP 55기	신일금고 대표이사 사장
김정수	경영 69	제이에스앤에프 회장
김호준	MBA 68기	BMW Korea 대표이사 사장
남궁덕	AMP 57기	(주) SR 건설 대표이사
박지원	경영 84	(주)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서경배	경영 81	(주)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서정락	MBA 78기	(주) 장풍 회장
송영휘	MBA 85기	미평그룹 회장
송자	상학 55	명지학원 이사장
심장식	경영 73	화인캐피탈 회장

기부자명	구분	직책
이강만	경영 74	헬름어드바이저즈 대표
이관식	경영 66	올림픽 CC 회장
이기을	상학 48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준	MBA 53기	코리아아트빌리지 회장
이두원	상학 58	(주) 한양철강 회장
이병무	경영 59	(주) 아세아 그룹 회장
이재범	AMP 11기	(주) 대지철강 회장
임부자	AMP 43기	(주) 광산 대표이사
고 임익순	경제 49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장홍선	경영 58	(주) 극동유화 회장
정구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KAIST 초빙교수
최도석	경영 70	전 삼성카드 부회장
황재광	MBA 74기	에프에스코리아 대표이사



연세경영의 글로벌 비전을 위한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관 신축



2020년 아시아 3위권, 글로벌 30위권 진입이라는 연세 경영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연구진이나 국제화된 커리큘럼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강의실이나 연구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선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영대학은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관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경영관은 용재관이 위치하는 835평의 대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총 7,751평의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지하 4층은 기계·전기실이며, 지하 3층은 주차장과 강의실,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은 강의실 및 학생들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행정공간과 경영연구소

는 지상 2층에, 그리고 도서관은 지상 4층에 위치하게 된다. 지상 3층 및 5층에서 7층은 교수님과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시설로 활용된다. 사례 토론이 중요한 경영학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30개가 넘는 토의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부분의 강의실은 계단형으로 설계해 교수·학생 간 토론식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국내 대학 최초의 친환경 국제인증건물 추구

경영관 설계팀은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해외의 주요 경영대학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경영관에 아트리움(Atrium)을 설치하고, LEED 인증(국제친환경 인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영대학에는 학부생,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MBA 학생, 그리고 교직원과 같은 다양한 그룹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아트리움은 경영대학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중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 아트리움은 120평 규모의 면적에 3층 높이로 설계해, 건물로 진입하는 학생들이 넓은 아트리움을 통해 건물 후면의 자연 녹지 공간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연과 소통하는 건물이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연세경영의 3대 핵심가치(창의성, 국제성, 윤리성)를 지향하는 각종 이벤트를 아트리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하도록 배려했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인증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그린빌딩협회(USGBC)가 제공하는 국제인증제도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 최근에 신축된 경영대학 건물들은 LEED 인증을 받고 있으나, 국내대학에서는 아직 LEED 인증사례가 없어 경영관이 LEED 인증을 받게 되면, 국내 대학으로서의 최초의 친환경 국제인증건물이 될 전망이다.

2014년 새로운 캠퍼스의 시대를 목표로!

경영대학은 지하 1층에 위치하는 고급 강당을 '용재홀'로 명명하고, 용재홀 전면 라운지에 기념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용재관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를 보존할 계획이다. 용재관 간판과 기초석, 옛 문짝, 철제 난간과 같은 시설물은 연세박물관에 보관하고, 1960년도 졸업생들이 성금을 모아 만든 동문기부계단, 대만의 중앙연구원 원장이었던 호적(胡適) 선생을 기념해 설립한 의망원(倚望園)비, 그리고 한결 김윤경 선생의 흉상과 같은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하도록 조경 설계를 마련했다. 즉 경영관은 연세 역사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을 것이다.

신축되는 경영관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관이 들어설 용재관 부지는 신촌캠퍼스의 중심 부분에 해당하며, 고전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경영관이 신축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강의와 연구 시설로 경영대학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완성된다. 동시에 LEED 인증을 통해 신촌캠퍼스의 친환경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경영관이 신촌캠퍼스의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기대한다.



아트리움

건축 경과 및 일정

- 2010.9 경영대학 신축부지 용재관으로 결정
- 2010.10 경영대학 신축부지(용재관)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
- 2012.5 경영대학 신축건물 설계 완료 (예정)
- 2012.6 ~ 2014.7 신축 공사
- 2014.8 신축건물 입주

경영관 개념

친환경적, 미래 지향적 신축건물 신촌캠퍼스의 랜드마크 건물
 경영대학 Core Value 반영 Creativity, Globalization, Integrity
 연세역사의 보존과 계승 용재홀, 동문 기부계단 등

경영관 부지

용재관 (70년대 도서관, 현재 교육과학대학)
 신촌 캠퍼스의 중심 중앙도서관 및 학생회관과 근접
 자연경관 노천극장 및 청송대 숲과 근접

경영관 규모 및 특성

지하 4층, 지상 7층 7,751평 규모
 자연 녹지와 연결되는 Atrium 공간 학생-교수 커뮤니티 공간
 최첨단 연구 및 강의 시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활용

경영관 신축 일정 2014년 완공 및 입주

총공사비 550억원 규모

건축자금 조성액 총 280억원

- 서경배 동문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100억원
- 개인 기부금 (2004년 이후) 100억원
- 자체 적립금 80억 (2004년 이전 발전기금, 상남경영원 수입금 등)

신축자금 추가조성 목표 270억원

- 기업 기부금 100억원
- 동문 기부금 170억원

신축 경영관의 새로운 이름, 모두가 함께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MBA 대형강의실



컴퓨터 LAB실



학부도서관



BMW홀

신축 경영관의 명명 대상 공간 전용면적 1평당 일반 시설 약 1천만원, 고급시설 약 1천5백만원의 기부금 예상

구분	실명(좌석)	평(PY)	개소	
공유시설	특수 공간	아트리움	116	1
		Information Lounge	94	1
		이벤트홀	51	1
		검색대	35	1
		SNS Studio	10	1
		고급스터디실	5	6
		분반실	5	5
		토의실	3~5	16
강의시설	계단형 강의실	용재홀 (186)	108	1
		초대형강의실 (97)	54	2
		대형강의실 (76)	48~50	5
		중형강의실 (57)	35~41	3
		MBA대형강의실 (76)	50	1
		MBA중형강의실 (57)	38~41	2
		면적합계	698	14
	평면형 강의실	학부평면강의실 (40)	19~20	3
		대학원평면강의실 (40)	20	1
		대학원평면강의실 (20, 24)	13~16	4
	면적합계	138	8	
	MBA라운지/토의실	MBA라운지	25	1
		Executive Lounge, 원우회	38	1
		MBA토의실	3	9
면적합계	89	11		
컴퓨터실	컴퓨터강의실 (64)	44	1	
	컴퓨터LAB실 (42)	29	1	
	Behavioral Lab	10	1	
	면적합계	84	3	
지원시설	도서관	학부도서관 (156)	100	1
		CPA라운지 (60)	51	1
		면적합계	151	2
	교수연구실	교수연구실	7~8	99
특임·명예·AMP주임교수실		7~8	6	
Break Out Room		9~10	4	
면적합계		783	109	
연구시설	조교연구실	조교실	7~9	20
		PhD연구실	7~8	7
		면적합계	204	27
	분이지원실	지원실	4~5	5
		면적합계	22	5
	회의실	세미나실	12~15	2
Board Room		29	1	
면적합계	56	3		
BMW연구소	BMW연구센터, BMW홀	29	1	
경영연구소	연구실, 행정실, 소장실	42	1	



Executive 라운지



아트리움



용재홀



초대형강의실

캠퍼스의 랜드마크 건물



학장실



라운지



검색대



Faculty Lounge



컴퓨터강의실



학부 평면강의실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전기’와 ‘물’로 인류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들고 싶다는 기업.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기업, 두산중공업의 CEO인 박지원 동문(경영 84)은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기업광고 카피처럼 인재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박지원 동문이 모교 신경영관 건축을 위해 5억원을 기부했다. 박 동문으로부터 기부 동기와 신경영관 건축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들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부 문화는 외국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교에 꼭 기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요즘 고려대학교를 보면 기업인 동문들이 굉장히 많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웃음). 길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화되어가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세경영의 수준도 미국의 톱 스쿨과 동등해져야 합니다. 학교가 발전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교수진과 인프라 시설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외에 동문들의 후원이 있어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영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비

즈니스 스쿨의 입지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과 세계적 기준에 맞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학교에 들어오는 자금이 하드웨어뿐 아니라 훌륭한 교수진 영입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도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동문은 바쁜 일정 중에도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는 아름다운 연세경영인이기도 하다. 박 사장의 연경리더스포럼 특강을 들은 경영학과 3학년 정혜진 학생은 그를 온몸으로 대답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회사의 기본 철학에 대해 CEO가 먼저 온몸으로 대답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행동해 직원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Diminisher’가 아닌 직원 하나하나를 아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을 빛나게 해주는 ‘Multiplier’가 되는 리더십. 박지원 동문은 재벌 4세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두산家 사람들 사이에서 ‘One of them’이 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해온 사람이고, 오로지 그의 노력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박지원 동문을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증폭시킨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이 두산중공업의 미래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의 이름을 빛낼 동문으로도 우뚝 설 것을 믿는다.

열정과 사랑을 남겨준 진정한 우리들의 스승 고 임익순 명예교수 유가족 건축기금 기부 스토리

올해 5월 30일이면 영면 4주기를 맞는 고 임익순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유족은 고인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3년째 매년 5천만원의 경영관 건축기금을 회사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경영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평생 땀과 노력을 기울인 고 임익순 명예교수. 연세경영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고인의 각별한 마음이 병상 중에 자제들에게 전달되었다.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교수님의 세 자제가 3억원의 건축기금을 약정했고, 그 후 매년 기부의 손길로 고인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故 임익순 명예교수는 연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 학사,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미국 Denver 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거쳐 Washington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55년부터 36년간 연세대학교에서 봉직하면서 상학과장, 재무처장, 상경대학장, 경영대학원장을 거쳐 1993년부터 4년여 동안 연세대학교 재단감사를 역임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재무학회 회장직 역임, 한국주택은행, 증권안정기금 운영위원과 국민연금기금 운영자문위원 활동 등 우리나라 경영학 재부분야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생전에도 모교와 후학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고 임익순 명예교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임익순 장학금」을 마련해 학생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그는 팔순이 넘는 나이에도 직접 장학생을 선발하는 열정을 보였을 만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한 진정한 우리들의 스승이었다. 교수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사랑으로 마련한 장학기금이 지금도 매 학기마다 한 명의 경영대학생을 후원하며 아름다운 나눔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임익순 명예교수의 연세 사랑은 세 자제인 임성빈(의학 81, 강남 우태하 피부과 대표원장), 이수빈(건축공학 84,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플힐 경영학 박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부교수), 이수현(음대 기악 88)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갑다 동기야!” 후배 사랑 마음 모아 경영관 건축기금 전달

경영 82 졸업 25주년 재상봉



연세대학교 창립 126주년을 맞이하는 2011년 5월 14일 82학번 입학생들의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가 있었다. 대우관을 찾은 경영학과 82 동문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박상용 학장은 재상봉 행사로 모교를 찾은 82 경영 동문들에게 “본교에 부임한 후 초기에 주로 82학번을 가르쳤는데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다”며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재상봉 행사 전, 경영대학에서 마련한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제자가 자신을 동기로 착각하고 반말로 인사를 건넌 에피소드를 들려주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연세경영이 대한민국 리더를 넘어 세계의 리더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 감상 후, 82학번 동기들이 십시일반 모은 경영관 건축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경영 82 재상봉 대표 고진훈 동문은 전년도 재상봉 기수인 경영 81 대표를 만나 모금 상황을 들은 후 3억원을 모금 목표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기금 조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일례로 모금의 기초가 되어줄 동기 20여 명의 뜻을 모아 1인당 1천만원을 기부해 기금 조성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구호집 동기가 처음으로 1천만원을 선뜻 입금하면서 이후 매일 입금 현황을 동기회 카페에 올려 공유하고 입금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경영 82 동기회 총 122명이 동참해 2억원의 건축기금을 회사했다. 졸업 후 25주년, 아득한 옛날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재상봉 동문들이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모은 사랑과 든든한 후원에 큰 감사를 전한다.

우리가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마음으로
한성근(경영 79 동기 대표, 세종아트콤 대표)

경영 79 한성근 동기 대표는 누구보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깊다. 캠퍼스를 찾을 때마다 재학시절을 떠올리며 조용히 모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그는 동기들을 독려해 1억원의 경영관 건축기금을 조성해 박상용 경영대학장에게 전달했다. 한 대표가 1억원의 건축기금을 조성하며 느낀 소회를 소개하며, 뜻을 모아준 경영 79 동기회에 감사사를 전했다.(편집자주)

경영관 건축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리 동기회는 경영관 건축기금으로 얼마를 기부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었다.

고민 끝에 79 동기회 이름의 강의실을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1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그런데 동기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좋은 일이다”,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돈 맡겨두고 달라는 것이냐”, “학교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 있느냐”는 거부감을 보이는 동기도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설득을 해나갔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기들의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많게는 1천만원부터 형편 달는 대로 몇 십만원까지 십시일반 모금한 것이 1차 3천5백만원, 2차 6백70만원으로, 결국 경영 79 동기회의 이름으로 총 1억2백만 원의 건축기금을 기부할 수 있었다.

자녀가 연세에 다니고 있어 기쁘게 쾌적한 친구,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이제는 뒤도 살펴보는 여유를 갖고자 마음을 표현한 친구, 어려운 가운데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하며 되레 미안해하던 친구... 동기회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준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었다.

후배들을 위해, 대단한 모교가 있다는 자부심으로, 아니면 내 자식 혹은 손자가 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연세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가 졸업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지 못할 지라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학 명문 연세경영을 우리가 선택해 들어가고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던, 우리가 사랑하는 연세경영이 계속 발전하고 명문으로 남아야 할 이유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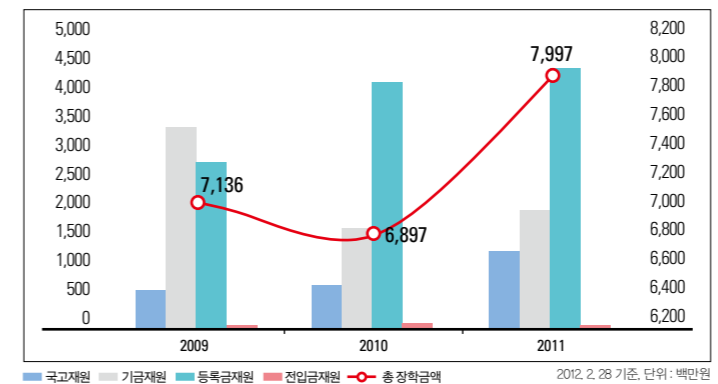
사랑하는 79 동기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2011학년도 경영대학 장학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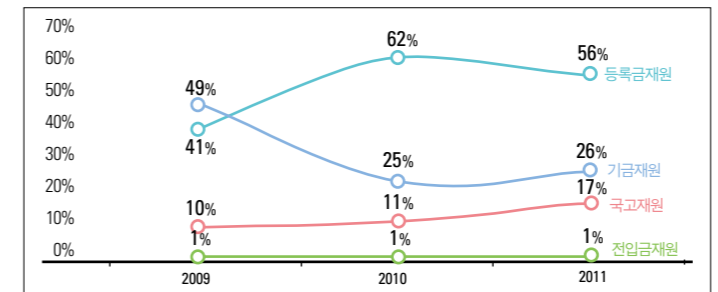
우리를 알지 못하던, 그러나 꿈을 믿은 독지가들의 선의의 기부와, 알렌(H.N. Allen)과 언더우드(H.G. Underwood), 그 밖의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세워져 120여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발전해온 연세대학교, 특히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연세경영은 2012년 오늘도 뜨거운 가슴을 지닌 연세경영인들의 희망과 열정을 응원한다.

2011학년도에 연세경영 재학생들은 약 80억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10학년도 장학금액 대비 16% 증가한 금액으로, 장학금의 약 60%인, 48억원은 학부생, 약 22%인 17억원은 석박사 과정, 약 18%, 15억원은 MBA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2011학년도 1인당 장학금액은 석박사 과정 603만원, MBA 292만원 학부 254만원 순이며, 등록금 대비 장학금액의 비율은 석박사 91%, 학부 36%, MBA 12%이다. 경영학 교육 100년을 맞이하는 2015년 연상 100주년까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45~50%로 증가시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염려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연세경영의 염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문 기부 및 외부 재원으로 마련되는 경영대학 장학기금을 매년 추가로 조성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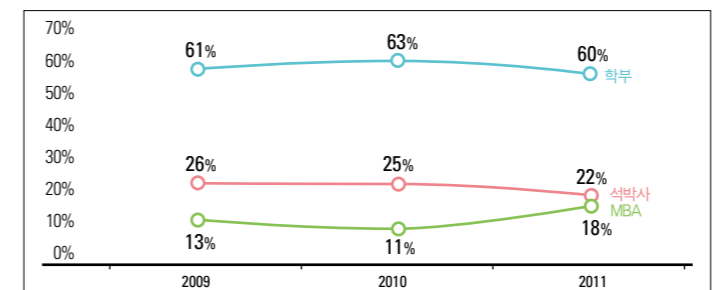
경영대학 장학금액 추이



경영대학 장학금 자원 현황



경영대학 장학금 수혜 현황 (장학금액 기준)



2010년에 이어 2011학년도에도 경영대학 동창회의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캠페인이 계속되었다. '재학생 모두가 장학생이 되는 그날까지'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동문 선배들의 지원이 크게 증가해 연세경영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일이 찾아 뵈고 인사를 드려 마땅하나, 지면을 통해서나마 4천만원 이상의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을 약정/회사한 아래 16명의 기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1학년도 블루버터플라이 고액 기부자 (가나다 순)

기부자명	구분	직책
강호찬	경영 95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고은봉	경영 66	진서 대표이사 사장
구재상	경영 83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김영진	경영 75	(주)한독약품 대표이사 회장
김정수	경영 69	제이에스엔에프 대표이사 회장
서창우	경영 78	한국 파마존스 대표이사
신용한	경영 88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심장식	경영 73	화인파트너스 회장
안용찬	경영 77	애경(주) 부회장
오광성	경영 71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
이영수	경영 72	한일재단 이사
이재익	경영 69	(주)PLES 대표
전찬민	경영 86	(주)팜클 대표
정용화	경영 66	(주)주영 대표이사 사장
한영재	경영 73	(주)노루홀딩스 회장
한태식	경영 61	Dbest 대표이사

“연세경영이 만들어준 오늘에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정용화 동문 (경영 66)과 고은봉 동문 (경영 66), 그리고 전찬민 동문 (경영 86)은 지난해 말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에 고액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재)연경장학회에서 재학생에게 4년 전액 등록금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 1천만원을 지급하는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사업에 흔쾌히 동참한 이들은 “연세경영에게서 받은 은혜를 되갚는 기쁜 마음”이었노라고 그 뜻을 밝힌다.

신세계백화점 이사와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패션 유통업계 기업인 (주)주영을 운영하고 있는 정용화 동문, 그리고 보티첼리, 브루넬로 쿠치넬리, 마우리치오 등 의류 브랜드 기업인 (주)진서의 대표이사 고은봉 동문은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우정을 간직하고 있는 66학번 동기 사이이다. 이 둘보다 20년 후배인 전찬민 동문은 가정용 살충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잡스’ 등을 생산하는 살균·살충 제품 전문 기업 (주)팜클의 대표이사이다. 특히 (주)팜클은 동종 분야 가운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순수 기술과 자본으로 연구와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들 세 동문이 연세경영 후배들을 위해 도움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해 말, 그 시작은 전찬민 동문에서 비롯되었다. “부회장 직함으로 동창회 활동을 하면서 연세경영에 진 빚을 언젠가 갚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지도교수이자 뉴욕대학교 MBA 과정에 추천서까지 써주셨던 박상용 교수님이 학장님이 되셨고, 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김영진 선배님이 동창회장이 되면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전찬민 동문은 20년 선배이자 평소 존경하는 정용화 동문에게 결심을 전했다. 두 사람은 5년 전 삼성경제연구소 와인 과정을 함께 수강하면서 가까워졌다. 그 인품에 매료되어 자주 따르다가 뒤늦게야 같은 과 선배인 것을 알고 더욱 반가웠다고. 전찬민 동문의 제안에 정용화 동문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라며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3~4학년 시절 모두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익진 장학금’을 한 번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을 평생 잊지 않고



고은봉 동문 (경영 66)



정용화 동문 (경영 66)



전찬민 동문 (경영 86)

마음에 새겨왔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감성적으로나마 끊임없이 ‘연세’라는 이름과 교감했기에 좋은 일에 당연히 함께해야죠.”

고은봉 동문은 평생의 친구인 정용화 동문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이 발전하는 데 교수진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부하는 인재의 기량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학생의 4년 학부 생활을 책임진다는 취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장학금이 좋은 인재들을 연세경영에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오래도록 이어가면 단연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교가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세 동문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든, 그렇지 않든, 모교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믿음의 뿌리, 바로 애교심이다.

정용화 동문은 연세경영이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금도 연세경영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연세경영은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학생 시절에는 진리와 자유와 정의의 뜻을 알지 못했죠. 구호가 있고 응원가에 있으니 따라 외쳤을 뿐인데, 살면서 이 세 가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인 제게는 종교의 뿌리도 대학교에서 찾을 수 있고, 연세의 정신은 인생을 동반해주는 좋은 길잡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은봉 동문은 유학을 가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던 4학년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한다. 또 사회에 나와 연세경영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교수님들은 1분만 늦어도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아주 엄격하고 원칙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배운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시카고 노스웨스턴 칼로그 비즈니스 칼럼 스쿨에서 수학하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다가 뒤늦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니다. 고충을 친구들에게 털어놨더니, 많은 선후배가 도움을 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때 ‘아 이것이 연세경영인들의 응집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그 덕을 꼭 갚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전찬민 대표는 기부뿐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접 후배들과 만나며 그들이 미래를 개척해가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학교 4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장 값진 시간이잖아요. 후배들이 단지 수업과 공부뿐 아니라 인격도 기르고 연세의 문화도 맘껏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치열하게, 결코 시간이 헛되지 않게 보낸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믿고 자신의 미래를 잘 만들어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치열하게.” 세 동문이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 두 단어로 정리될 듯싶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세 동문이 인생을 살아온 기틀이기도 하다. 치열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준 정용화, 고은봉, 전찬민 동문. 그들의 모교 사랑이 많은 후배들과 동문들에게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민호 (경영 06)

황정희 사모님, 안녕하세요.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통 장학금을 받으면 재단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면으로 외부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과에서 전화를 받고 '자필로 편지를 주길 원합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이렇게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사를 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남 중 장남으로 안양에서 자라 현재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해에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 다행히 46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원래 저는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집안 사정으로 방향을 바꿔 준비하다 보니 제 적성은 회계·재무 쪽임을 알았고 앞으로 이쪽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 사실 저의 꿈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춤 동아리, 극단, 밴드 등을 통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환호하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꿈들은 취미가 되었지만 그 꿈을 계속 간직한다면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제 길을 선택한 것에 후회도 없고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수님과 사모님이 그러하셨듯이 저 또한 여러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절대 이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정성을 늘 생각하며

윤송이 (경영 10)

안녕하세요? 선배님. 겨울 문턱에 들어서니 기숙사 창밖이 제법 황량합니다. 저는 2010년에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윤송이입니다. 경남 밀양이 고향인 저는 지금 버터플라이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납부할 줄 알았는데 무료로 새 학기 등록을 하니 부모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수시를 지원해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꿈같기도 합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고, 서울 생활과 만만치 않은 등록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빠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시골에서 두 자녀를 대학 보내는 부모님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받는 '블루 버터플라이 프로젝트'는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의 기쁨보다도 2배, 아니 10배 이상의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부모님도 늘 액수를 떠나 누구나 어렵게 번 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블루 버터플라이 프로젝트'가 다른 장학금 제도와 다른 점은 '십시일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등록금도 한 분이 아닌 여러 선배님들의 정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니 공부하고 수업 들을 때도 책임감이 그만큼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탐색 중입니다. 회계사, 로스쿨, 교환학생, 다양한 진로를 앞에 두고 혼란을 겪고 있지만 많이 생각하고 공부해 천천히 결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지 선배님들께 꾸짖러운 학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바쁘신 중에 후배 사랑을 아끼시지 않는 선배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BASIC PROGRAM				
구분	① 독수리	② 백양	③ 청송	④ 무악
공통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공통	기념품 증정, 『연세소식』· 학교달력 발송			
명예	감사장 (패) 수여			백주년기념관 명판 부착
교육	상남경영원, 사회교육원, 전산원 수강료 20% 할인	자녀 기숙사 입사 우선권 도서관 열람권 연세어학당 수강료 20% 할인	부속 교육기관 수강료 30% 할인, 도서대출권	
의료	건강검진료 30% 할인		진료비 10% 할인 건강진단권 2매	진료비 20% 할인 건강진단권 2매 후원자 전용창구 이용
생활	교내 학술행사 및 문화행사 초대	동문회관 결혼식장·장례식장 이용료 20% 할인		동문회관 결혼식장·장례식장 이용료 30% 할인

PREMIUM PROGRAM		
구분	① 진리	② 자유
공통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공통	기념품 증정, 『연세소식』· 학교 달력 발송	
명예	강의실, 실험실 등 고유 명칭 부여	건물 명칭 부여
교육	부속 교육기관 수강료 50% 할인 특수대학원 등록금 50% 할인 특수대학원 입학 우대	부속 교육기관 수강료 무료 특수대학원 등록금 무료
의료	진료비 50% 할인 건강진단권 4매, 매 2년마다 평생	진료비 전액 감면 (배우자는 10년간)
생활	동문회관 결혼식장·장례식장 이용료 50% 할인 총장 초청 만찬	동문회관 결혼식장·장례식장 이용료 무료, 총장 초청 만찬



졸업생의 선물, Class Gift 연세경영의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동문 선배가 졸업생에게, 졸업생이 신입생에게.” 윤리적이고 창의적인 리더로 자라날 연세경영인이 갖춰야 할 아름다운 나눔의 시작입니다.

2010학년도 졸업식부터 시행된 졸업생 기부, ‘Class Gift’는 연세경영인으로서의 프라이드와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선배들의 내리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 캠페인이다. 소정의 금액을 졸업 예정자들이 기부해 선물 재원을 마련하며, 이 재원이 선물 준비에 부족한 경우 학교가 그 부족분을 채워 선물을 준비하고, 초과되는 경우 ‘2012년 Class Gift’라는 이름으로 경영대학 발전기금에 기부된다.

또한 졸업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졸업생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담은 졸업 선물, MCM 명함 지갑이 동문 선배들의 후원으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Class Gift: 졸업생의 선물을 통해 동문 선배가 졸업생에게, 졸업생이 신입생에게 전하는 연세경영의 내리사랑,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나눔]이 시작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2012 Class Gift는 학부/대학원/MBA 졸업생 256명이 9,171,000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특히 Executive MBA 1기 졸업생들은 졸업을 기념하며 Class Gift로 경영관 건축을 위해 1억2백만원의 건축기금을 약정해 새로운 졸업생 기부 문화의 틀을 마련했다.

졸업생 선배들이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남긴 추천 도서는 학부 신입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3월 신입생 멘토링 행사에서 신입생 대표에게 전달되었다. 이를 통해 선배들의 추천 도서가 신입생들에게 전달되었고, MBA와 석박사 신입생은 역시 선배들의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신입생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멋진 볼펜을 입학 선물로 받았다.

2012 CLASS GIFT

새내기들에게 전하는 선배 졸업생의 메시지와 추천도서

Leif Karlen(GMBA, <Pleasures and sorrows of work>) Take every chance to learn Korean. Like all good things they will come to an end.

강성협(경영 05, <달과 6펜스>) 동아리 활동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성장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국외로 나가 견문을 넓히세요.

김기수(석사 졸업생, <아웃라이어>) 취업 준비도 좋지만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바랍니다. 생각의 가치관은 강의를 통해서 얻어지지만 삶의 행동에서도 얻어지니까요.

김상일(경영 03, <대마불사>) 과외를 제외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이는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은경(MBA 89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Global experience trip, 좋습니다. 좋은 과목 청강도 해보시구요, 설령설령 수업시간에만 참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많이 얻어주세요. 열심히 신나게 최대한 즐기세요!

김지은(경영 05, <목적 이끄는 삶>)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길. 인생의 황금기를 잘 보내세요.

김현준(경영 05, <아프니까 청춘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길 권합니다. 무엇을 해도 용인되는 되는 것은 아마 대학생살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조금해하지 말고 많은 도전과 경험을 통해 진정한 배움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박영웅(MBA 89기, <전략의 적은 전략이다>) 다양한 사례 연구를 최대한 많이 해보길 권합니다. 수업이든 숙제이든 기금적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찬민(경영 04, <인연>) 교환학생은 꼭 다녀오세. 1학년 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습니다. 연세에서 좋은 인연들 많이 맺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변현근(MBA 89기, <경영, 경제, 인생>) 한 과목이라도 인문학이나 과학에 관심을 갖고 청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격률치지의 정신으로 뿌리를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송민지(경영 08,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배낭여행 꼭 해보세요! 돈은 약간 모자란 듯싶게 자유로운 대학 시절에 이 넓은 세상,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세요.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새로운 일에 겁없이 부딪혀보세요. 취업 준비는 따로 안 하더라도 외국어만큼은 항상 공부하세요.

송유경(경영 05, <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사회속에서 연세인으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심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자신에게 기대해봅니다. 후배들 모두 대학에서 섬김, 그 마음을 꼭 배우고 사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정윤(경영 03, <로마인 이야기>) 문과대 수업, 이과대 수업 등 타 단과대 수업을 들어보세요. 보는 눈이 넓어질 겁니다. 대학시절은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송지성(경영 05,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 추천해드린 책의 주인공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를 꼭 해보길 바랍니다! 정영로 불타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미친 듯이 매진하는 자유인이 되어 보십시오.

유재준(경영 06, <연금술사>) 적성을 찾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고시나 전문직이 항상 옳은 답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직장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치영 (MBA 89기, <논리의 기술>) 어렵게 시작한 대학원 생활이기에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남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대학 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장재웅(경영 05,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길 바랍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연세인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동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만들어나갑시다.

진하(석사 졸업생, <아프니까 청춘이다>) 학점 물론 중요하지만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것들,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주민서(경영 04, <서양문명의 역사(하)>, <위험한 미술사>) 자원봉사, 배낭여행, 창업 등 대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역사, 철학, 문학 등의 서적을 많이 읽어 기초를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웅(경영 07, <Made in America>) 외국에서 살다 온 유학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뿐이 아니고, 가족, 친구 그리고 노력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갑수(MBA 89기, <나쁜 보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기를 익혔으면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눈치도 보이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무엇보다 달콤합니다.

최인실(MBA 89기,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수업은 꼭 빠지지 마세요. 들은 만큼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요. 2년의 시간은 지나고 보니 굉장히 짧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홍석(경영 05, 인연) 학회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집단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겪을 새로운 경험이 후배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줄 것입니다.

Operational Highlights

주요 지표 (금액단위: 만원)

구분	2011	2010	2009
Undergraduate Program			
지원자수	6,274	5,067	6,736
합격률	18:1	14:1	16.4:1
재학생수	1,879	1,847	1,734
외국인학생 비율	6.5%	6.4%	6.3%
교환학생 파견수	111	122	166
영어강의 비율	30.9%	34.0%	35.5%
1인당 장학금액	254	240	258
등록금 대비율	35.5%	31.2%	33.5%
MBA Program			
지원자수	781	765	1,168
합격률	2.77:1	2.9:1	4.8:1
재학생수	506	452	423
외국인학생 비율	9.5%	9.1%	7.6%
영어강의 비율	28.9%	30.5%	35.1%
1인당 장학금액	292	171	223
등록금 대비율	12.0%	7.0%	8.0%
MS/Ph.D Program			
지원자수	617	520	493
합격률	4.9:1	5.7:1	5:01
재학생수	289	281	282
외국인학생 비율	20.8%	24.6%	24.1%
영어강의 비율	13.1%	78.0%	79.0%
1인당 장학금액	604	622	651
등록금 대비율	91.0%	87.0%	93.0%
AMP			
지원자수	178	109	130
합격률	1.68:1	1.33:1	1.30:1
재학생수	106	84	98
Executive Education			
위탁과정 수	21	21	14
모집과정 수	8	9	8
재학생수	1,042	1,020	797

구분	2011	2010	2009
Faculty			
전임교원	70	68	63
신입교원	2	7	3
퇴직교원	0	2	1
여성교원	8	7	4
외국인교원	8	8	5
객원교원	7	7	4
겸임교원	26	24	23
연구교원	2	2	2
Staff			
행정전담 직원	19	18	14



경영대학 기금 현황

(2012.2.28. 기준, 단위: 백만원)

기금 구분	전기 이월액	기금 수입	기금 인출	당기 잔액	증감액	증감
건축기금	19,799	1,940	Δ1,256	20,483	684	3.45%
장학기금	1,195	620	Δ488	1,327	131	10.98%
프로그램발전기금	1,694	52	Δ25	1,721	27	1.61%
석좌교수기금	3,424	126	Δ29	3,521	97	2.83%
합계	26,112	2,738	Δ1,799	27,051	939	3.60%

연세경영 Leadership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학장 겸 원장	박상용	원장	손성규
부원장	서길수	부원장	허대식
교학부학장	엄영호		
기획부학장	이호근		
석박사 주임교수	문두철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김영찬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박헌준		
O.D.I 분야 주임교수	손재열		
재무 분야 주임교수	신진영		
회계 분야 주임교수	이호영		
Global MBA 주임교수	손재열		
Corporate MBA 주임교수	임 일		
Finance MBA 주임교수	김인준		
Executive MBA 주임교수	장대련		
AMP 주임교수	강영기		
		경영연구소	
		소장	장대련
		부소장	한재훈



Thank You

2011학년도 연세경영 기부자 명단 (가나다순)

강민석 (MBA 2010)	김길수 (경영 79)	김인규 (MBA 2010)	박영숙 (경영 82)	성필호 (경영 65)
강석필 (경영 82)	김낙찬 (AMP 67기)	김일근 (경영 82)	박인준 (경영 03)	손기원 (경영 82)
강성민 (경영 77)	김대균 (경영 87)	김장원 (경영 82)	박일동 (MBA 2010)	손민경 (경영 82)
강성준 (MBA 2010)	김대영 (경영 82)	김재호 (경영 82)	박장우 (경영 79)	손범수 (경영 82)
강신택 (경영 82)	김대영 (MBA 2006)	김종신 (경영 82)	박장호 (경영 82)	손석우 (경영 83)
강원 (경영 82)	김민권 (경영 82)	김중태 (경영 78)	박종구 (경영 79)	손원형 (MBA 2010)
강재구 (경영 82)	김민수 (경영 82)	김중환 (MBA 2010)	박주규 (AMP 72기)	송석진 (경영 79)
강호찬 (경영 95)	김민철 (경영 82)	김진우 (경영 82)	박창호 (경영 79)	송영구 (MBA 2010)
고광수 (경영 81)	김병균 (경영 82)	김진홍 (경영 79)	박천석 (경영 82)	송원근 (AMP 38기)
고병운 (MBA 2010)	김보성 (경영 97)	김태정 (경영 90)	박현준 (경영 73)	송치남 (경영 82)
고병현 (경영 64)	김상순 (MBA 2010)	김현민 (경영 82)	박현수 (경영 82)	송호성 (경영 79)
고봉찬 (경영 82)	김상현 (경영 82)	김희선 (경영 82)	박혜성 (경영 11)	승수언 (MBA 1992)
고석환 (MBA 2010)	김석희 (경영 82)	남정현 (경영 82)	박희춘 (경영 79)	신동희 (경영 82)
고은봉 (경영 66)	김선규 (경영 82)	노경오 (경영 82)	배영훈 (경영 82)	신상인 (MBA 1987)
고정희 (경영 79)	김성수 (MBA 1970)	노병용 (경영 69)	배정아 (경영 82)	신성호 (경영 79)
고진훈 (경영 82)	김수한 (MBA 2010)	류중열 (경영 79)	배판규 (AMP 72기)	신용인 (경영 70)
곽근호 (AMP 54기)	김시범 (경영 82)	문태호 (경영 82)	배호원 (경영 70)	신용한 (경영 88)
구세훈 (경영 82)	김영돈 (경영 82)	민재훈 (경영 82)	백기범 (MBA 1997)	신인수 (경영 79)
구재상 (경영 83)	김영승 (경영 69)	민정기 (경영 82)	변기섭 (영어영문 98)	신태성 (AMP 72기)
구호림 (경영 82)	김영진 (경영 75)	민지홍 (경영 82)	변기욱 (MBA 2004)	심장식 (경영 73)
권광호 (MBA 2010)	김옥중 (경영 82)	박광식 (경영 82)	변현근 (MBA 2010)	신태섭 (경영 79)
권승희 (경영 70)	김왕태 (경영 82)	박기환 (AMP 71기)	서기원 (경영 82)	안성원 (경영 82)
권오국 (AMP 65기)	김요대 (경영 82)	박대석 (경영 82)	서길수 (경영 79)	안용찬 (경영 77)
권은영 (경영 75)	김용석 (경영 06)	박미자	서민호 (경영 82)	양일수 (경영 82)
김강 (경영 82)	김용식 (MBA 2010)	박민호 (경영 82)	서봉수 (AMP 71기)	양재하 (AMP 72기)
김건하 (경영 82)	김용태 (MBA 2010)	박상용 (경영 69)	서정락 (MBA 2003)	양창욱 (경영 82)
김경훈 (경영 82)	김원섭 (경영 82)	박상현 (경영 82)	서창우 (경영 78)	연강흠 (법학 74)
김광수A (경영 82)	김윤미 (경영 82)	박선원 (경영 82)	선명순 (AMP 71기)	연종현 (AMP 71기)
김광수B (경영 82)	김윤희 (경영 82)	박성래 (AMP 72기)	설도원 (MBA 1998)	오경백 (경영 82)
김광진 (경영 82)	김은경 (경영 82)	박성찬 (경영 82)	설진영 (경영 82)	오광성 (경영 71)
김근수 (경영 79)	김은식 (MBA 1974)	박영렬 (경영 76)	성용훈 (경영 00)	오유성 (경영 79)

오재영 (경영 82)	이진석 (MBA 2010)	정희구 (경영 82)	황봉구 (AMP 71기)	김창성 (상학 64)
오재항 (AMP 72기)	이진영 (경영 82)	제희원 (MBA 2010)	황일청 (상학 50)	김형철 (상학 64)
원종규 (MBA 2010)	이태희 (경영 82)	조남은 (경영 82)	황호진 (경영 82)	김형희 (상학 64)
유성원 (MBA 2010)	이해욱 (경영 82)	조민정 (경영 82)	무기명 (경영 82)	남세현 (상학 64)
유재학 (경영 82)	이행일 (AMP 72기)	조석준 (MBA 2008)		류필구 (상학 64)
유초영 (불문 83)	이형훈 (경영 82)	조성진A (경영 82)	단체	민병수 (상학 64)
윤승현 (경영 79)	이호상 (경영 79)	조성진B (경영 82)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민영우 (상학 64)
윤여항 (AMP 72기)	이화숙 (AMP 71기)	조용석 (경영 82)	경영전문대학원 AMP 동창회	박완기 (상학 64)
윤영수 (경영 82)	이홍주 (경영 79)	조용진 (MBA 2010)	경영전문대학원 MBA 동창회	박희면 (상학 64)
윤인한 (AMP 72기)	이희환 (경영 79)	조재우 (경영 79)	경영 79 동교회	변영남 (상학 64)
윤형근 (경영 82)	인치정 (경영 79)	조현제 (경영 82)	경영 82 재상봉	변정수 (상학 64)
이갑재 (경영 82)	임건신 (경영 82)	주원 (경영 82)	AMP 71기	서풍길 (상학 64)
이강만 (경영 74)	임규원 (MBA 2010)	차승훈 (경영 82)	AMP 72기	양중석 (상학 64)
이경하 (경영 82)	임부자 (AMP 43기)	차영종 (경영 82)	EMBA 1기	양하석 (상학 64)
이관우 (MBA 2010)	임섭 (MBA 2010)	채목호 (경영 79)	Y경영학회	오반수 (상학 64)
이규영 (경영 82)	임성혁 (경영 82)	채희경 (MBA 2010)		용한백 (상학 64)
이규호 (경영 82)	임성호 (경영 79)	채희천 (경영 79)	기업	유성락 (상학 64)
이근철 (경영 79)	임영수 (경영 82)	천형기 (경영 82)	(재)성주재단	유성환 (상학 64)
이동환 (경영 79)	임재만 (경영 82)	최규설 (경영 79)	(주)아모레퍼시픽	유원석 (경영 92)
이동희 (경영 79)	임정효 (AMP 71기)	최덕신 (경영 82)	(주)연합인포맥스	유희 (상학 64)
이두원 (상학 58)	장덕흠 (AMP 71기)	최동완 (MBA 2010)	(주)웅진씽크빅	이기현 (상학 64)
이병남 (경영 82)	장부익 (경영 79)	최상로 (경영 82)	(주)이랜드월드	이명식 (상학 64)
이석재 (경영 82)	장재철 (경영 82)	최선미 (영어영문 87)	(주)이마트 본점	이성수 (상학 64)
이성훈 (경영 79)	장재혁 (경영 82)	최영근 (경영 82)	(주)하이마트	이승일 (상학 64)
이수찬 (경영 79)	장홍선 (경영 58)	최현 (경영 82)	(주)한국안센	이우찬 (상학 64)
이승우 (경영 82)	전광원 (경영 82)	추연옥 (경영 93)	선등문화장학재단	이정상 (상학 64)
이승희 (경영 82)	전용배 (AMP 34기)	한기암 (MBA 2010)	우리투자증권(주)	이중구 (상학 64)
이영근 (경영 82)	전찬민 (경영 86)	한봉수 (경영 79)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이중희 (상학 64)
이용희 (MBA 2010)	전현식 (경영 82)	한성근 (경영 79)	한일재단	이희균 (상학 64)
이우성 (경영 82)	정광진 (경영 82)	한영재 (경영 73)	Dept. of Veterans Affairs	임이환 (상학 64)
이윤희 (경영 82)	정기인 (경영 82)	한영진 (AMP 71기)		정기성 (경제 05)
이은경 (MBA 2010)	정기호 (경영 79)	한태식 (경영 61)	2010학년도 연차보고서	정상진 (상학 64)
이장원 (석박사 2007)	정병철 (상학 65)	한현주 (경영 81)	누락 기부자	정철호 (상학 64)
이재찬 (경영 79)	정보근 (MBA 2010)	함정인 (경영 79)	강차영 (상학 64)	정현모 (상학 64)
이정규 (경영 79)	정석준 (경영 82)	허석균 (경영 79)	故윤태수 (상학 64)	조국현 (상학 64)
이정조 (경영 73)	정성락 (MBA 2010)	허인철 (경영 79)	구종기 (상학 64)	최재기 (상학 64)
이제훈 (경영 79)	정안수 (AMP 72기)	홍득기 (경영 87)	권국용 (상학 64)	최춘식 (상학 64)
이종달 (경영 70)	정용화 (경영 66)	홍성택 (경영 82)	기순홍 (상학 64)	한봉균 (상학 64)
이종석 (경영 82)	정의현 (MBA 2010)	홍순기 (MBA 2010)	김동숙 (상학 64)	황의달 (상학 64)
이종화 (AMP 53기)	정종민 (경영 82)	홍순호 (경영 82)	김상근 (상학 64)	
이준명 (MBA 2010)	정태환 (경영 82)	홍순훈 (AMP 71기)	김성중 (상학 64)	
	정택진 (경영 81)	홍찬선 (경영 82)	김순규 (상학 64)	
	정형연 (경영 79)	홍형욱 (경영 82)	김진두 (상학 64)	

2012 CLASS GIFT

졸업생의 선물 2012 Class Gift 참여자 명단

총 **256** 명, 기금조성액 **9,171,000** 원

◎ 석박사 13명

김기수 김혜미 김홍 송성애 신현준 이경화 이길태
이원석 이철원 정기위 조효배 진하 채수준

◎ MBA 66명

강찬기 권영윤 김대철 김대현 김동수 김성열 김성택
김성호 김영진 김영근 김은경 김재완 김정환 김진갑
김진숙 김창근 김창형 김태승 김한준 문웅상 박석돈
박영웅 박종원 박춘홍 백상현 서동우 서보희 손기영
손기종 송주호 안병욱 안정진 양주윤 오영우 유태인
윤덕수 윤법렬 윤치영 이견학 이국성 이동우 이동훈
이민석 이수영 이슬기 이용권 이재범 이종근 이주리
장기호 장정순 전성미 정갑수 정석찬 정양오 정재학
정한길 조인식 조태연 최인실 최준환 최현식 하인호
한인섭 황지원 Leif Karlen

◎ EMBA 34명

강민석 강성준 고병운 고석환 권광호 김상순 김수한
김용식 김용태 김인규 김종환 박일동 변현근 손원형
송영구 원종규 유성원 이관우 이용희 이은경 이종현
이준명 이진석 임규원 임섭 정보근 정성락 정의현
제희원 조용진 채희경 최동완 한기암 홍순기

◎ 학부 140명

강성협 강진우 강창희 고경진 고경환 곽은영 김경태
김도형 김동주 김동훈 김민우 김상일 김시현 김우아

김정기 김정명 김준효 김지은 김지혜 김태정 김태혁
김현우 김현준 김형준 김혜영 김확렬 남상덕 남윤승
노가영 노근현 문기성 박경찬 박기영 박기홍 박성수
박수정 박종필 박준영 박준호 박지수 박찬민 박철오
박태준 박해수 박현규 박현지 백성희 백운도 변정윤
서원교 서정원 손소현 송민지 송승아 송유경 송인성
송재원 송정윤 송지섭 신단비 신정우 심영보 신재은
안동산 안정수 안진아 양성수 양희완 염지현 오대하
오명석 오영환 용승철 유가영 유재준 윤석기 윤승인
윤주형 윤지현 이강욱 이경원 이광용 이광희 이동욱
이슬 이영선 이예솔 이원제 이유진 이재형 이정민
이정환 이정훈 이지인 이태현 이한 임그린 임상은
임상혁 임철성 임현민 장미리 장세경 장수찬 장은지
장재용 장혜림 전미선 전범준 전용배 정미홍 정원조
정자현 정재욱 정지원 정진엽 정혜승 조선영 조성규
조승우 조용준 조용호 조용 조은지 조인혁 조항영
주민서 진수정 채종민 최보민 최영은 최유진 최재환
최지혜 최혜선 최홍석 허은희 허준 현지은 홍성은

(인적 정보 미확인 3명 포함)



뿌듯한 영수증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값,
우리 뒤를 따라 걷는 후배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RECEIPT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012-3-28(수)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끽했던
백양로의 눈부심 값 5,000

노천극장 '한여름밤의 꿈'의
관객이 되었던 행복 값 10,000

첫 사랑의 손을 잡게해준
청송대의 분위기 값 20,000

울적할 때 마음을 기대던
운동주시비의 위로 값 15,000

노트대신 활용하려던
백양관 책상 위 낙서 값 5,000

연고전 아침 외치던
아카라카의 뿌듯함 값 20,000

절반이상 도망쳤던
채플시간의 땀방울 값 5,000

'이교수, 김회장, 권회계사, 서대표,
송의원... 평생친구들을 만난 값' 20,000

합계 100,000



YONSEI UNIVERSITY

사랑한다
연세경영
기금조성

연세경영은 연상(延商)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까지
글로벌 50위권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뿌듯한 영수증, 그 마음을 담아 연세
경영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시시오.

기금입금계좌 건축기금 우리은행 126-000082-18-358
장학기금 우리은행 126-000082-18-412
발전기금 우리은행 126-000066-18-603

기금납부방법 일시납, 정기납 (신용카드, 자동이체, 약정기간 자유 선택), 수시납
기금 관련 문의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02)2123-5445/6254, Fax) 02-2123-8639, ysb-edo@yonsei.ac.kr

참고 이미지는 2006년 연세춘추 광고이며 작가의 동의를 얻어 각색했습니다

연세경영 교수진

전임교수

마케팅

마케팅 전공

- 김동훈 Ph.D. (Columbia University, 1989)
- 김영찬 Ph.D. (University of Michigan, 1995)
- 박세범 Ph.D. (Northwestern University, 2004)
- 박홍수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1988)
- 오세조 Ph.D. (University of Cincinnati, 1987)
- 이경미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5)

- 이동진 Ph.D. (Virginia Tech., 1996)

- 이문규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1)

- 이완수 D.B.A. (University of Tennessee, 1981)

- 장대련 D.B.A. (Harvard University, 1986)

- 최정혜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전공

- 곽주영 Ph.D. (MIT, 2008)

- 박영렬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3)

- 박용석 Ph.D.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0)

- 최순규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매니지먼트

- 권구혁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 김지현 Ph.D. (New York University, 2011)

- 노현탁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0)

- 박경민 Ph.D. (INSEAD, 2005)

- 박헌준 Ph.D.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 신동엽 Ph.D. (Yale University, 1996)

- 양혁승 Ph.D. (University of Minnesota, 1998)

- 오홍석 Ph.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 윤세준 Ph.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8)

- 이지만 Ph.D. (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 이호욱 Ph.D. (Texas A&M University, 2002)

- 장은미 Ph.D. (University of Maryland, 1993)

- 정동일 Ph.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 정승화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재무

재무 전공

- 구본일 Ph.D. (Columbia University, 1988)

- 김동훈 Ph.D. (Stanford University, 2005)

- 김인준 Ph.D. (Columbia University, 1985)

- 박상용 Ph.D. (New York University, 1984)

- 베티우 Ph.D. (University of Amsterdam, 2010)

- 신진영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 신현한 Ph.D.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

- 엄영호 Ph.D. (New York University, 1996)

- 연강흠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 임웅기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9)

- 정종락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 한재훈 Ph.D. (Columbia University, 2003)

보험 전공

- 김정동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회계

- 김지홍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 문두철 Ph.D. (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 손성규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92)

- 윤대희 Ph.D. (Yale University, 2008)

- 이경태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92)

- 이호영 Ph.D. (University of Oregon, 2000)

- 장진호 D.B.A. (Harvard University, 1999)

- 주인기 Ph.D. (New York University, 1986)

- 최원욱 Ph.D. (Columbia University, 1993)

O.D.I

오퍼레이션 전공

- 김태현 Ph.D. (Indiana University, 1986)

- 민순홍 Ph.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2001)

- 배성주 Ph.D. (MIT, 2009)

- 최선미 Ph.D. (Cornell University, 2001)

- 허대식 Ph.D. (Indiana University, 2001)

정보시스템 전공

- 김준석 D.B.A. (Indiana University, 1982)

- 서길수 Ph.D. (Indiana University, 1989)

- 손재열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 오원석 Ph.D. (New York University, 2000)

- 이호근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3)

- 임건신 Ph.D.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0)

- 임 일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경영과학 전공

- 경규학 Ph.D. (Oec HSG St. Gallen, 1979)

- 김성문 Ph.D. (University of Michigan, 2003)

- 김진우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 김학진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1)

- 박선주 Ph.D. (University of Michigan, 1999)

- 신영수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78)

- 정예림 Ph.D. (University of Paris1, 2010)

직원 및 연구교수

- 김동원 Ph.D. (Korea University, 1987)

- 김성수 Ph.D.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993)

- 노병탁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6)

- 이수진 Ph.D. (Columbia University, 2010)

- 장 명 Ph.D. (Yonsei University, 1995)

- 장정훈 MBA (University of Michigan, 1978)

- 정기호 Ph.D. (University of Cincinnati, 1986)

- 강영기 Ph.D. (Yonsei University, 1998)

- 양정미 Ph.D. (Brown University, 1987)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5445 Fax: +82-2-2123-8639

Homepage: <http://ysb.yonsei.ac.kr>